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조선로동당의 투쟁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조선 로동당의 투쟁

조선 로동당 출판사
1958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조선 로동당의 투쟁

박 연 백 저

조선 로동당 출판사
1958

목 차

위대한 쏘베트 군대에 의하여 조선이 일제의 식민지 통치 기반으로부터 해방된 후 이미 13년이 경과하였으며 조선 정전이 실현된지도 벌써 5년이 지났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미제의 남조선 강점과 그의 침략 정책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통일되지 못하고 우리 인민은 국토 량단의 불행 속에서 계속 고통을 받고 있다.

국토의 량단과 민족의 분렬은 조선의 완전 자주 독립과 민족 경제의 발전에 결정적인 장애로 되고 있으며 인민들의 생활에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가져다 주고 있다.

분렬되여 있기 때문에 남반부 인민들은 또 다시 빈궁과 암흑과 무권리의 식민지 체로 통치하에서 신음하고 있으며 남북 조선에 있는 풍부한 자연 부원과 생산의 제반 가능성들이 나라의 륭성 발전을 위하여 통일적으로 리용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남북으로 갈라진 일가 친척들과 친우들 간에 상봉은 고사하고 소식조차 주고 받을 수 없게 되였다.

때문에 이와 같은 비극적이며 비정상적인 상태를 하루 속히 제거하고 조선의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는 문제는 해방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항상 조선 인민의 절실한 념원으로 되고 있으며 우리 혁명의 당면한 최대 임무로 제기되고 있다.

그리하여 조선 혁명의 참모부인 우리 당은 창건된 첫날부터 나라의 민주주의적 통일 독립 달성을 자기의 당면 투쟁 임무로 규정하고 맑스—레닌주의 전략 전술에 립각하여 변천되는 정세에 적응하는 구체적인 조국 통일 방책을 제시하면서 시종일관 그의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여 왔으며 또 하고 있다.

즉 해방 직후에는 조선을 민주주의 자주 독립 국가로 발전시킬 것을 예견한 국제적 협약인 모쓰크바 3국 외상 회의 결정 실천을 통하여 조국의 통일 독립을 달성하려 하였으며 그 후 미

제의 책동에 의하여 이 회의 결정에 근거한 조국 통일 실현의 가능성이 파탄된 조건하에서는 모든 외국의 간섭을 배제하고 조선 인민 자체의 손으로 통일 정부를 수립하여 조국의 민주주의적 통일을 실현할 것을 주장하여 나섰다.

그리고 당은 전후 시기에 있어서도 계속 평화적 조국 통일에 대한 확고한 립장을 견지하면서 협상과 회담의 방법으로 조선 인민 자신의 손에 의하여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주동적이며 적극적인 대책을 취하고 있다.

특히 현 시기에 있어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 방안을 제시한 2월 5일부 공화국 정부의 성명과 조선으로부터의 중국 인민 지원군 철거 완료는 조선의 평화적 통일 문제 해결을 촉진함에 있어서 새로운 긍정적 국면을 열어 놓은 중대한 조치로 된다.

만일 우리 당과 정부의 이러한 정당하고 합리적 방안들에 대한 미 제국주의자들과 리 승만 도당의 반대 책동이 없었더라면 우리 조국은 이미 오래 전에 통일되였을 것이며 국토의 분렬로 인한 온갖 불행은 벌써 제거되였을 것이다.

그러나 미제와 그 주구 리 승만 도배들은 우리의 성의 있는 모든 제안들을 접수하지 않고 그 실현을 백방으로 방해하여 왔으며 오늘에 있어서는 또한 조선과 극동에서 평화를 위협하는 침략 행동을 더욱 로골화하고 있다.

우리 조국 남반부를 계속 강점하고 있는 미제 침략 군대는 중국 인민 지원군이 북반부에서 전부 철거한 오늘에 있어서도 남조선으로부터 물러 가려고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조선 강점을 더욱 영구화하며 조선에서 긴장 상태를 격화시키기 위하여 혈안이 되여 날뛰고 있다.

력사적 사실이 확증하여 주는 바와 같이 미 제국주의자들의 남조선 강점은 우리 나라에서 평화를 위협하며 평화적 통일을 장애하며 남조선을 기아와 암흑한 세계로 전락시키는 기본 요인으로 되고 있다. 미제가 오늘 남조선에서 하는 일, 그것은 침략 정책의 추구 뿐이며 정전 협정의 파괴와 새 전쟁 도발

을 위한 음모 뿐이다.

때문에 미국 군대가 남조선을 강점하고 있으며 그의 침략 정책이 계속되는 한에 있어서 조선에서 공고한 평화는 있을 수 없으며 평화적 통일도 실현될 수 없으며 남반부 인민들의 처지가 개선될 수 없다. 오직 미국 군대가 남조선으로부터 철거함으로써만 우리 나라에서 공고한 평화는 유지될 수 있으며 조선의 평화 통일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미제 침략 군대의 철거는 조선 문제 해결의 선결 조건으로 된다.

오늘 조선 로동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조선 인민의 투쟁에 더욱 더 유리하게 전변되고 있는 국내외 정세에 확고히 의거하면서 미제 침략군의 조속한 철퇴와 조선 인민 자신의 손에 의한 조선 문제 해결을 실현하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이며 완강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당의 적극적인 노력과 주동적 역할에 의하여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현실적 가능성은 나날이 풍부해 지고 있으며 평화 통일 력량은 더욱 장성 강화되고 있다.

조선 로동당의 옳바른 령도하에 오늘 조선 인민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자기들의 위업이 정의의 것이며 현 국제 정세 발전의 합법칙성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더욱 확신하고 있다.

1. 북반부의 민주 기지 창설과 조선 문제에 관한 모쓰크바 3상 회의 결정 실천을 통한 조국의 통일 독립 달성을 위한 당의 투쟁

1945년 8월 15일 쏘련 군대의 영웅적 투쟁에 의하여 군국주의 일본이 타도됨으로써 조선 인민들은 근 40년 간에 걸친 일제의 식민지 통치 기반으로부터 해방되였다.

일제의 무력을 단시일내에 타도하면서 쏘베트 군대는 북위 38도 선 이북 조선 지역에 진주하였다.

쏘베트 군대의 북조선 진주는 일본 군대의 무장을 해제하며 조선 인민의 민주주의 자주 독립 국가 건설을 원조할 데 대한 고상한 국제주의적 립장과 사명으로부터 출발된 것이였다.

쏘련 군대는 북조선에 진주한 첫날부터 일제 패잔 군대의 무장을 해제하는 동시에 미제 침략 기도를 제때에 폭로하며 그로부터 조선 인민을 보호하여 주었으며 지주, 예속 자본가, 친일파, 친미파, 민족 반역자 등 반동 세력의 정치 무대에로의 대두와 그의 파괴 활동을 방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조선 인민에게 주었다. 뿐만 아니라 자주 독립 국가 건설을 위하여 궐기한 조선 인민에게 자립적인 민족 경제와 민족 문화의 부흥 발전의 광활한 길을 열어 주었으며 물질적 정신적으로 되는 계속 부절한 원조를 주었다.

이와 같은 쏘베트 군대의 북조선 진주와 그의 원조 그리고 대전후 사회주의 및 민주주의 진영의 급격한 장성들은 해방후 우리 나라 혁명 발전에 거대한 영향을 주었으며 우리 나라에서 인민 민주주의 혁명이 승리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어 주었다.

그러나 혁명의 승리적 수행을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조성된 유리한 조건만으로는 부족하다.

문제는 혁명 발전의 유리한 조건을 옳게 리용하여 정확한 투쟁 로선과 전술을 확립하고 그 기초 우에서 혁명을 승리에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강력한 지도적 향도적 력량의 존재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특히 해방전 종파 분자들의 해독 행위로 말미암아 당을 가지지 못한 채 해방을 맞이하게 된 조선 인민들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더욱 날카롭게 제기되게 되였다.

여기에 있어서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의 고국 개선은 실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즉 이로써 해방후 우리 나라 혁명 운동은 진실로 맑스—레닌주의적 지도적 핵심의 령도하에 이미 항일 무장 투쟁을 통하여 이룩된 옳은 투쟁 로선과 전략 전술에 기초하여 승리적으로 전개될 수 있게 되였다.

해방된 조선 인민들은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은 유리하게 전변된 정세하에서 《터진 화산과도 같이》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각 방면에 걸쳐 새로운 생활을 창조하는 투쟁에 궐기하였다.

앙양된 인민 대중의 혁명적 불'길 속에서 각 지방에서는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공산당 단체들이 출현하였으며 그의 지도하에 광범한 민주주의 사회 단체들이 조직되여 대중들이 집결되기 시작하였다.

다른 한편 인민들은 각 지방에서 일제 통치 기구를 소탕하고 인민의 창의에 의하여 지방 자치 기관으로서의 인민 위원회들을 창설하였다.

각지에 조직된 인민 위원회들은 해방 직후 혼란된 질서를 바로 잡으며 사회 안전을 도모하며 일제와 그 주구인 친일파, 민족 반역자들의 최후 발악적인 파괴로부터 산업, 운수 기관과 기타 국가 및 인민 재산을 보호하였으며 그들의 낡은 제도 유지를 위한 음모 책동을 분쇄하였다.

이와 반면에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직접적 비호 밑에 살고 있던 친일파, 민족 반역자, 지주, 예속 자본가 등 반동 세력은

일제의 패망과 동시에 몰락하였으며 해방후 인민 대중의 정치적 열성이 날로 앙양되는 조건하에서 극히 위축되였으며 인민들로부터 고립되였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쏘련 군대에 의한 조선 해방과 그의 북조선 진주는 해방후 조선 혁명 발전의 광활한 길을 열어 주었으며 우리 나라에서 일제 반제 반봉건 력량은 로동 계급 령도하에 통일되여 갔다.

그러나 일제가 쏘련 군대에 의하여 격멸된지 근 한 달이 지난 9월 8일에 미제 침략 군대가 38도 선 이남의 남조선 지역에 상륙하여 식민지 예속화 정책을 실시하게 됨으로써 조선 혁명 운동 도상에는 커다란 장애가 조성되게 되였다.

그들은 남조선에 상륙한 첫날부터 일제 통치 기구를 그대로 계승하면서 군정을 실시하고 남조선에 대한 통치권을 틀어쥐고 식민지화 정책을 로골적으로 실시하는 길에 들어 섰다.

미제는 우선 자기들의 식민지 예속화 정책을 지지 협조할 지주, 예속 자본가, 친일 친미파, 민족 반역자 등 반혁명 세력을 규합하고 비호하는 한편 민주 진영에 대한 탄압을 강화함으로써 혁명 력량을 말살하려고 시도하였다. 즉 1945년 10월 남조선 미 군정 장관 하지는 남조선에서는 미 군정이 유일한 정부라고 공공연히 선포하면서 해방과 함께 조선 인민의 창의에 의하여 수립되였던 인민 위원회를 강제로 해산시켰으며 그 간부들을 체포 투옥하였다. 뿐만 아니라 조선 인민의 정치적 활동을 억압하며 초보적인 민주주의적 권리마저 말살하기 위하여 집회와 시위까지도 《허가제》로 할 것을 강요하였다.

또한 미제는 조선의 민족 공업과 경제 발전을 저애하며 조선을 자기들의 원료 공급지로, 상품 판매 시장으로 전환시키려고 식민지 예속화 정책을 로골적으로 감행하는 길에 들어 섰다.

이리하여 우리 조국은 38선을 계선으로 하여 인공적으로 두 부분으로 분렬되게 되였으며 민주주의 완전 자주 독립 국가 건설을 위한 조선 인민의 력사적 과업은 순조롭게 실현될 수 없게 되었다. 즉 해방후 조선 인민은 일제를 대신하여 남조선

을 강점한 미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간고한 투쟁을 전개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였다.

해방후 조성된 이러한 정세는 이에 대처하는 정확한 투쟁 로선을 규정하며 인민 대중의 혁명 력량을 일층 집결하고 그의 투쟁에 대한 능숙한 지도를 보장할 수 있는 혁명적 맑스—레닌주의 당 창건을 더욱 긴급한 것으로 제기하였다.

그리하여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은 이미 반일 무장 투쟁 시기에 이룩한 당 창건의 조직 사상적 준비에 기초하여 통일적 맑스—레닌주의적 당 창건을 위한 사업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그 결과 1945년 10월에 당 중앙 기관인 조선 공산당 북조선 조직 위원회가 창설되였으며 당은 이때로부터 통일적이며 건전한 맑스—레닌주의 당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북조선 조직 위원회의 창건을 계기로 조선 혁명은 처음으로 자기의 튼튼한 참모부를 가지게 되였다.

북조선 조직 위원회는 조성된 국내외 정세를 정확히 분석하고 반제 반봉건적 민주 혁명의 완수를 위한 투쟁 로선을 규정하였다.

당은 우리 나라에 통일 독립된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을 창건하는 것이 해방후 우리 혁명 앞에 제기되는 당면한 전략적 과업이라고 인정하고 그를 수행하기 위한 투쟁 방도를 제시하였다.

당은 해방후 미제의 남조선 강점으로 인하여 우리 나라가 인공적으로 분렬되고 우리 혁명이 간고성과 장기성을 띠게 된 조건하에서 우리 혁명의 발전과 그의 완전 승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우선 북반부에 쏘련 군대가 지어 준 유리한 조건을 리용하여 조국 통일 독립의 기초로 되는 강력한 혁명적 민주 기지를 창설해야 한다고 인정하였다. 그것은 조성된 정세하에서 북반부에 강력한 혁명의 근거지를 창설함으로써만 이를 토대로 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우리 혁명의 완전 승리를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였다.

그러므로 당이 규정한 민주 기지 창설 로선은 곧 조국 통일 실현을 위한 로선이요, 조선 혁명의 완전 승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전략적 방침인 것이다. 즉 북반부의 혁명적 민주 기지가 창설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조국의 통일과 우리 혁명의 완전 승리는 촉진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민주 기지 창설 로선은 해방후 조성된 특수한 정세에 대처하여 우리 혁명 임무를 완수하기 위한 가장 정확한 방침인바 이는 혁명 근거지 창설에 대한 맑스—레닌주의 전략 전술과 형제적 당의 경험 특히는 반일 무장 투쟁 시기에 있어서의 유격 근거지—해방 지구 창설 경험을 해방후 새롭게 조성된 우리 나라 혁명 정세에 창조적으로 적용 발전시킨 것으로 된다.

당은 민주 기지 창설에 대한 방침을 제시하고 이를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 구호와 호상 밀접히 결부시키면서 혁명의 주체적 력량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 전 당과 인민 대중을 동원하기 시작하였다.

당의 지도하에 그가 제시한 정확한 정치 로선에 따라 조선 인민들이 조국의 통일 독립의 물질적 담보로 되는 북반부 민주 기지 창설에 진출하고 있을 때 미제 침략자들은 우리 조국 남반부에서 자기들의 식민지 침략 체제를 확립하며 국내 반동 세력을 규합함에 급급하였다.

이러한 시기인 1945년 12월에 조선의 민주주의적 발전을 국제적으로 보장하며 자주 독립의 전망을 명시하여 준 조선 문제에 관한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결정이 발표되였다.

조선을 자기들에게 예속시키려는 미제는 벌써 이 회의에서 자기의 침략적 본질을 폭로하였다.

미국의 결의 초안에 의하면 조선은 쏘, 미, 영, 중 4개국 대표들로 구성된 행정 기관의 명의로 활동하는 어떤 최고 총감에 의하여 반드시 관리되여야 하며 이 《관리》는 5개년을 예정하고 필요에 의해서는 5년 동안 더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기한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후견 시기가 시작된다고 하면서 조선 정부 수립에 관하여서는 전혀 예견하지 않았다.

그러나 회의에서 쏘련측은 조선을 자기들의 식민지로 전락시키려고 시도한 미제의 이와 같은 침략적 기도를 견결히 반대하면서 조선을 민주주의 자주 독립 국가로 부흥 발전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이리하여 조선 문제에 관한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결정은 쏘련측의 제안에 근거하여 채택되였다.

결정에는 조선을 민주주의 자주 독립 국가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통일적 민주주의 림시 정부를 수립할 것이 지적되였으며 정부를 수립함에 있어서 반드시 광범한 조선의 민주주의 정당 사회 단체들과 협의할 것이 규정되였다.

그리고 민주주의 림시 정부 수립후에 있어서도 민주주의 림시 정부와 민주주의 제 정당 사회 단체의 참가하에 조선 인민의 정치, 경제, 사회적 진보와 조선의 독립 국가 수립 및 그의 민주주의적 자주 발전을 원조 협조할 목적으로 최고 5개년을 기한으로 하는 4개국 공동 후견제를 실시할 것이 규정되였다.

이와 같이 모스크바 3상 회의 결정은 조선의 자주 독립과 민주주의적 발전의 길을 명시하여 주었으며 그를 위한 제 조건과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때문에 이 결정은 우리 당이 제시한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창건 로선과 모순되지 않을뿐더러 쏘련의 적극적인 참가가 예견되여 있는 조건하에서 그의 급속한 실천은 곧 조선의 통일 독립과 민주주의적 발전을 촉진시켜 주며 미제의 조선에 대한 침략 행위를 저지시키고 조선의 부강한 민주주의 자주 독립 국가 건설을 국제적으로 보장할 가능성을 지어 준다.

《때문에 이 결정은 진실로 조선 민족의 력사적 전통에 또는 일제 식민지가 된 후 빛나는 반일 해방 투쟁에 근거하여 8. 15 해방후 조선 인민의 지향과 숙망을 가장 호의적으로 조선 인민의 립장에서 해결하며 조선 인민에게 자유 발전의 길을 개척하여 준 정당하고 공정한 결정이며 여하한 제국주의의 침략도 용허하지 않는 결정이다》(《김 일성 선집》 제 1권 1955년

판 164페지).

우리 당은 모쓰크바 3상 회의 결정이 발표되자 조선 인민의 리해 관계와 우리 나라 구체적 현실에 부합되는 이 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 이에 기초한 통일적 림시 정부 수립의 방법으로 조국의 민주주의적 통일 독립을 달성해야 한다고 인정하였다.

우리 당의 뒤를 따라 우리 나라에서 반제 반봉건적 민주 혁명 과업 수행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정당 사회 단체들도 이 결정을 지지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나섰다.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 당은 모쓰크바 3상 회의 결정 실현을 위한 투쟁을 민주 력량의 통일 결속을 위한 투쟁과 유기적으로 결부하여 진행하였다.

당은 우선 3상 회의 결정의 정당성을 당원들과 광범한 인민 대중 속에 해석 침투시키는 한편 민주주의 제 정당 사회 단체들과 함께 이 결정을 지지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여 전체 인민들이 이를 적극 지지 호응할 것을 호소하였다. 이에 호응하여 조선 인민들은 3상 회의 결정을 지지하는 군중 대회와 시위 운동을 광범히 전개하면서 이 결정에 기초한 민주주의 림시 정부의 급속한 수립을 요구하여 나섰다. 1946년 1월 6일 하루 동안에만 하여도 북조선 각지에서 이를 지지하여 300만 명 이상의 인민들이 군중 대회와 시위 운동에 참가하였다. 대회와 시위에 참가한 군중들은 《모쓰크바 3상 회의 결정을 절대 지지한다!》, 《자유 독립 조선 건설을 반대하는 친일파, 민족 반역자들을 타도하자!》라는 구호하에 더욱 자기들의 력량을 집결하였다.

이리하여 3상 회의 결정을 지지하는 투쟁 속에서 북조선의 제 정당 사회 단체들의 통일 전선적 집결은 더욱 강화되였다.

이렇게 북조선에서는 조선 문제에 관한 모쓰크바 3상 회의 결정 실현을 촉진시키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인민들의 통일과 단결이 강화되여 갔다.

이러한 시기에 남조선에서는 세계 진보적 여론의 압력과

쏘련의 정당한 주장에 의하여 마지 못해서 모쓰크바 3상 회의 결정을 승인하였던 국제 반동의 괴수 미 제국주의자들이 이 정당한 결정을 처음부터 외곡하며 그의 실현을 파탄시키려고 온갖 악랄한 책동을 다하면서 조선을 자기들의 식민지로 만들려고 광분하였다. 즉 미제는 남조선에서 반혁명 력량을 사촉하여 소위 《반탁 운동》을 조작하면서 모쓰크바 3상 회의 결정에 지적되여 있는 후견제를 《신탁 제도》, 《위임 통치 제도》인 듯이 허위 선전하였으며 나아가서는 인민들에게 반쏘 사상을 주입시키기 위하여 마치도 쏘련이 10년 간의 후견제를 주장한 것 같이 허위 날조하였다. 동시에 미제는 모쓰크바 3상 회의에서 조선 문제가 결정은 되였으나 조선 인민이 반대하면 그대로 안 될 수도 있다고까지 하면서 반동들을 사촉하였다.

한편 남조선에서 반동 분자들은 미제와 결탁하여 모쓰크바 3상 회의 결정 실현을 반대함으로써 자기들의 여명을 유지하여 보려고 책동하였다.

인민들로부터 고립되여 초조해진 반동들은 모쓰크바 3상 회의 결정을 외곡하여 《신탁 통치 반대》, 《즉시 완전 독립》 등의 구호를 들고 나옴으로써 자기들을 애국자로 가장하는 동시에 인민 대중을 기만하여 반동 진영을 강화하려고 기도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남조선에서는 미제와 국내 반동 세력들 간의 결탁이 더욱 강화되여 나갔으며 그들은 《반탁》, 《반쏘》, 《반공》 선전을 발광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이때에 우리 당내에 잠입하였던 박 헌영—리 승엽 도당과 엠엘 종파 분자들 및 기타 반당 종파 분자들은 미제에 발맞추어 또는 그의 지령에 의하여 《반탁》 운동을 시도하였는바 그 중에서도 박 헌영—리 승엽 도당들은 자기들의 졸도를 리용하여 수만매의 《반탁》 삐라를 인쇄하였으며 《신탁 통치를 반대한다》는 론문까지 신문에 발표케 하였다. 한편 자기들의 졸도들을 시켜 《반탁》 강연회를 수차 조직 진행하였으며 심지어 《반탁 시위》까지 조직하려고 시도하였다.

남조선 당내에서 자기의 정체를 가장하고 지도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던 박 헌영—리 승엽 도당들의 이러한 《반탁》 진출은 당원들과 로동 계급, 나아가서는 전체 애국적 인민들에게 적지 않은 정치적 혼란과 동요를 조성시켰다.

때문에 우리 당 중앙 위원회는 제때에 이들의 반당적 반쏘적 진출을 극복하고 남조선의 애국적 인민들을 3상 회의 결정의 지지와 그의 실현을 위한 투쟁에로 불러 일으켰다. 그 결과 남조선에서도 민주주의적 제 정당 사회 단체들에 의하여 모쓰크바 3상 회의 결정을 지지하는 운동들이 광범히 전개되게 되였으며 인민들의 혁명적 력량은 반동들이 조직한 《반탁 운동》을 압도하였다. 1946년 1월 3일에는 서울에서 조선 문제에 관한 모쓰크바 3상 회의 결정을 지지하는 시위 운동이 진행되였으며 그 뒤를 이어 각 지방들에서도 이를 지지하는 광범한 군중 운동들이 전개되였다.

그러나 모쓰크바 3상 회의 결정 발표를 계기로 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민주와 반동간의 대립 투쟁이 더욱 날카로운 성질을 띠게 되였으며 우리 나라의 정치 정세는 더욱 첨예화되여 갔다.

즉 조국의 통일 독립을 갈망하는 일체 애국적 민주 력량은 3상 회의 결정을 지지하는 애국적 민주 진영에 결속되여 갔으며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미제에 예속시키려는 지주, 예속 자본가, 친일 친미파, 민족 반역자 등 일체 반인민적 력량은 3상 회의 결정을 반대하는 반동 진영에 결속되여 갔다.

미제와 국내 반동들이 3상 회의 결정을 적극 반대하여 나선 사실은 조선에서 통일적 민주주의 림시 정부 수립이 용이하게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었으며 이는 동시에 조선 혁명의 발전을 일층 복잡화시켰다.

국내에 조성된 이러한 정치 정세하에서 당은 국내 반혁명 세력의 《반탁》 진출을 분쇄하고 조선 문제에 관한 모쓰크바 3상 회의 결정 실현에 의한 조국의 민주주의적 통일 독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본 방침에 근거하여 투쟁을 전개하였다.

당은 모쓰크바 3상 회의 결정 원칙에로 전체 인민들을 결기시키면서 일방으로는 이 결정 실현을 파탄시키려고 획책한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의 침략적 매국적 행위를 폭로하며 그들을 광범한 대중으로부터 고립시키는 대책을 취하는 동시에 타방으로는 이 결정에 예견된 통일적 민주주의 독립 국가 건설을 실현하기 위하여 일체 애국적 정당 사회 단체들과의 통일 전선을 결성하며 우리 나라 북반부에 강력한 민주 기지를 급속히 창설하는 사업을 추진시키였다.

이는 조성된 정세하에서 우리 혁명을 발전시키기 위한 가장 정확한 방침이였다.

당은 우선 민주 기지 창설의 첫 사업으로서 그를 통일적으로 지도하기 위한 중앙 정권 기관의 조직을 제기하고 1946년 2월 북조선 림시 인민 위원회를 창설하였다.

북조선 림시 인민 위원회의 창건은 인민 정권 수립을 위한 반일 무장 투쟁의 고귀한 혁명 전통을 계승한 것을 의미하며 북반부에서의 통일적 주권 문제 해결을 의미하는 동시에 3상 회의 결정에 기초한 전 조선 민주주의 림시 정부 수립을 위한 튼튼한 기초를 만들어 놓은 것을 의미하였다.

북조선 림시 인민 위원회는 창건된 첫날부터 우리 당의 령도하에 조국의 통일 독립과 북반부의 혁명적 민주 기지 창설을 위하여 자기 앞에 제기된 력사적 과업을 실천하는 길에 들어 섰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쏘련 정부의 성의 있는 노력과 조선 인민의 적극적인 념원에 의하여 1946년 3월 20일 서울에서 모쓰크바 3상 회의 결정 실천을 위한 쏘미 공동 위원회가 개최되였다.

쏘미 공동 위원회가 개최되자 김 일성 동지는 장차 수립될 림시 정부의 성격에 대한 당의 명확한 태도를 표명함으로써 우리 당 주위에 일체 민주주의적 애국적 력량을 집결하고 반동들을 고립시키며 공동 위원회 사업에 조선 인민의 요구를 관철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고 1946년 3월 23일 20개조 정강을 발표하였다.

20개조 정강은 로동 계급을 비롯한 각계 각층 인민들의 력사적 숙망을 정확히 표시하였으며 조국의 자주 독립과 민주주의적 발전 방향과 과업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때문에 당은 20개조 정강을 발표하면서 이 정강에 제기된 기본 요구 조건들을 실행하는 정부만이 진정으로 조선 인민의 자유와 정치적 권리와 복리 향상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로 될 것이며 조국의 자유 독립을 보장할 수 있는 정부로 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이와 같이 20개조 정강은 직접적으로는 쏘미 공동 위원회에 의하여 앞으로 수립되여야 할 림시 정부의 성격과 과업을 명시한 것으로 되며 동시에 이는 북조선 림시 인민 위원회가 실행하여야 할 강령을 전반적인 부문에 걸쳐서 보다 구체적으로 성문화한 것이며 반제 반봉건적 민주 혁명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우리 당의 강령의 구체화이며 그 실현을 위한 행동 강령으로 되는 것이다.

때문에 20개조 정강이 발표되자 전체 조선 인민들은 이를 열렬히 지지 찬동하면서 이 정강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민주주의 림시 정부 수립을 강력히 요구하여 나섰다.

쏘미 공동 위원회에서 쏘련 대표단은 조선 인민의 요구에 충실히 립각하여 조선의 자주 독립과 민주 발전을 보장하는 조선 민주주의 림시 정부 수립을 위하여 강경히 투쟁하였다.

그러나 공동 위원회 사업은 미국측의 부당한 주장과 계획적인 파괴 책동에 의하여 회의 벽두부터 난관에 봉착하게 되였다.

회의에서 미국 대표는 3상 회의 결정을 고의적으로 위반하면서 쏘미 공동 위원회의 협의 대상 문제를 토의하는 마당에서 민주주의 제 정당 사회 단체들을 배제하고 리 승만을 괴수로 한 반동 도당들과만 협의할 것을 주장하면서 친미적인 반동 괴뢰 정부를 수립하려고 책동하였다. 그들은 쏘련 대표의 정당한 주장에 의하여 자기들의 침략적 기도가 파탄에 빠지게 되자 공동 위원회 사업을 중지하자는 의견을 제기하고 회의를 중단시켰다.

이와 같이 미국측의 고의적인 파괴 행위로 말미암아 제 1차 쏘미 공동 위원회는 1946년 5월 8일 무기 휴회로 들어 갔다.

이 회의 과정을 통하여 조선 인민은 우리 인민의 리익에 충실한 쏘련의 립장과 조선을 자기의 식민지로 전변시키려는 미제의 침략적 본성과의 차이, 우리 당과 남조선 반동들의 립장의 차이를 명백히 인식함으로써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전취하기 위하여 우리 당 주위에 일층 집결되였다. 또한 조선 인민은 위대한 쏘련과의 친선과 국제주의적 련대성을 더욱 강화하며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을 더욱 강력히 전개하여야만 3상 회의 결정 실현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을 확고히 인식하게 되였다. 이와 반면에 제 1차 쏘미 공동 위원회의 휴회를 전후하여 남조선에서 미제와 국내 반동들의 반동적 공세는 일층 로골화되였으며 우리 나라 정치 정세는 더욱 복잡하게 되였다.

이러한 정세하에서 우리 당은 북조선에서 반제 반봉건적 민주 혁명 과업을 급속히 실현함으로써 조국 통일의 물질적 기초를 축성하며 남조선에서 미제와 국내 반동 세력을 인민들로부터 더욱 고립시키기 위한 투쟁을 일층 강화하였다.

당의 지도하에 북반부에서는 북조선 림시 인민 위원회를 통하여 거대한 사회, 경제적 변혁들이 성과 있게 수행되여 갔다.

당과 인민 정권은 민주 개혁의 첫 사업으로 1946년 3월에 력사적인 토지 개혁을 승리적으로 완수하였다. 이 개혁을 통하여 북조선에서는 지주 계급을 청산하고 봉건적 토지 소유 관계를 숙청함으로써 근로 농민들을 세기적 예속과 착취와 기아와 멸락으로부터 영원히 해방시켰다.

1946년 8월에는 일본 제국주의자들과 친일파, 민족 반역자들의 소유이였던 일체 산업, 은행, 운수 수단들을 몰수하여 국유화함으로써 그들의 경제적 지반을 박탈하였으며 우리 나라 인민 경제에서는 국영 부문이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게 되였으며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가 발생하게 되였다.

그리고 로동 법령을 비롯한 일련의 민주주의적 법령들을

실시한 결과에 일제 사회 생활에서 남은 사회 관계가 근본적으로 제거되고 새로운 민주주의적 사회 관계가 확립되였다.

이리하여 우리 조국 북반부는 우리 나라의 통일 독립을 완성할 수 있는 정치, 경제, 문화적 기지로, 우리 혁명의 성과적 추진을 위한 강력한 민주 세력의 기지로 전변되여 갔다.

동시에 민주 개혁의 수행과 반동 계급들과의 첨예한 계급 투쟁을 통하여 로동자, 농민들의 계급적 각성과 의식 수준이 제고되였으며 근로 대중들의 정치적 통일이 강화되였다. 북조선에서의 민주 개혁의 실시는 또한 계속 억압과 착취, 기아와 빈궁에 신음하는 남조선 인민들을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투쟁에로 힘차게 추동하였다.

당의 지도하에 북반부 민주 기지가 창설되고 그 강화를 위한 전 인민적 투쟁이 전개되고 있던 시기에 미제의 남조선에 대한 침략 정책은 일층 로골화되여 갔다.

조성된 정세는 당 앞에 우리 자체의 혁명 력량을 가일층 강화해야 할 과업을 제기하였다. 혁명 력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북반부의 민주 기지를 공고화하는 한편 남조선에서의 로동 계급의 전투력을 제고하며 남반부 인민들 자신의 주체적 혁명 력량을 더욱 강화해야 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만이 미제 침략 세력을 제어하고 조선 독립의 국제적 담보인 모쓰크바 3상 회의 결정에 기초한 림시 정부 수립의 방침을 관철시킬 수 있는 것이였다. 당은 남반부에서 혁명의 주체적 력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남조선 로동 계급과 근로 농민을 비롯한 대중의 일상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정확히 그리고 꾸준히 지도해야 될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당은 남반부 우리 당 단체들로 하여금 북반부에서 진행된 민주 개혁의 성과들을 가지고 대중을 고무하면서 우선 무엇보다도 당 단체들을 강화하여 대중을 집결하며 통일 전선을 결성하여 혁명 승리의 결정적 조건을 준비케 하였다.

남반부에 대하여 당이 초기부터 실시하여 온 이와 같은 정책에 의하여 미제에 대한 대중의 증오심은 나날이 높아 갔으며

로동•계급을 선두로 한 혁명 력량의 통일 결속은 날로 확대 강화되여 갔다.

이렇게 되자 미제는 종전의 방법 대로 해서는 남조선을 식민지화할 수 없다고 인정하고 민주 력량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여 나섰다.

그들은 특히 우리 당에 대하여 전면적 탄압을 가하였으며 당을 고립시키려고 온갖 흉책을 다하였다.

미제는 일제 시대의 《치안 유지법》보다 더 악독한 《미 군정 포고령 위반법》을 조작하여 민주 진영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는 한편 소위 《좌우 합작》 음모를 진행하여 민주 진영의 분렬을 획책하였으며 이에 기초하여 자기의 주구들을 규합하여 《남조선 립법 의원》을 조작하며 군정 통치를 합법화하려 하였다.

미제의 이러한 정치적 탄압과 지배는 경제적 략탈 및 예속화와 병행되였다.

미제는 남조선에 상륙한 첫날부터 일제 일본 국가 및 일본인 소유였던 산업 시설과 재산들을 그 형태, 규모 여하를 불문하고 소위 《적산》이라는 명목하에 약 80% 이상 강탈하였다. 이리하여 미제는 남조선에서 기간적 산업 부문을 강도적으로 략탈하고 민족 경제를 파괴하며 남조선을 미국 잉여 상품의 판매 시장으로 만들었다.

농업에서도 미제는 일제의 《동척》의 재판인 《신한 공사》를 통하여 토지를 강탈했으며 중세기적 봉건적인 착취 형태를 유지 강화함으로써 남조선 농촌을 전면적 몰락에 직면케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 시기 미제 침략자들은 남조선을 군사 전략적 기지로 전환하기 위하여 광분하였으며 괴뢰 군대를 편성 확장하였다.

미제의 이러한 식민지적 침략 정책은 남조선을 사실상 미제의 식민지로 전락시켰으며 조선의 민주주의적 통일 독립 실현에 커다란 장애를 조성하였다.

이러한 정세하에서 우리 당 앞에는 민주주의적 애국적 력

량을 당 주위에 더 광범히 집결시키며 북반부의 혁명적 민주 기지를 강화 발전시키면서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을 일층 강력히 전개해야 할 임무가 제기되였다.

여기에서 당은 김 일성 동지의 올바른 령도하에 새로운 력사적 환경과 우리 나라 혁명 발전에 순응하여 당을 더욱 대중적 정당으로 발전시킬 데 대한 조직 로선을 실현함으로써 남북 조선 로동당을 창건하는 력사적 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당은 자기의 전투력을 일층 강화하였으며 남북 조선의 전체 민주주의적 애국적 력량을 혁명 과업 수행을 위한 투쟁에로 더 강력히 조직 동원할 수 있게 되였다.

당은 자기의 전투력을 강화하며 민주 력량을 더욱 통일 결속시킴과 함께 조국의 통일 독립과 북반부에 축성된 민주 기지를 정치, 경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조직 전개하였다.

민주 기지를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북반부에서 이미 수행한 반제 반봉건적 민주 혁명의 성과에 기초하여 사회주의에로 이행하는 과도기의 과업들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되였다.

이 과업의 성과적 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은 우선 혁명의 강력한 무기인 인민 정권 기관을 강화하는 사업에 착수하였다.

당의 지도하에 북반부에서 1946년 말과 1947년 초에 우리 나라 력사상 처음으로 되는 일반적, 직접적, 평등적 비밀 투표의 원칙에 의한 인민 주권 기관 선거가 실시되여 북조선 인민 회의와 북조선 인민 위원회가 창설되였다.

이리하여 우리 인민 정권은 일층 강화 발전되였으며 그의 경제—조직자적, 문화—교양자적 기능은 제고되였다.

당은 강화된 인민 정권을 무기로 하여 민주 개혁의 성과들을 공고 발전시키며 민주 기지를 경제적으로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과도기의 경제 건설 사업에 모든 력량을 집중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당은 3상 회의 결정에 기초한 통일적 림시 정

부 수립을 촉진시킬 목적으로 미제의 책동에 의하여 중단된 쏘미 공동 위원회의 재개를 요구하는 투쟁에 대중을 동원하였다.

당의 지도하에 쏘미 공동 위원회 재개를 요구하는 운동은 쏘미 공동 위원회가 파탄된 직후부터 전 조선 각지에서 계속 광범히 진행되였다. 1946년 6월에 북반부 지역에서만 하여도 쏘미 공동 위원회 재개를 요구하는 광범한 군중 대회와 시위에 도합 450만 명이 참가하였다.

북반부 인민들과 함께 남반부 인민들도 북반부에서 달성한 제반 민주 개혁의 성과와 북반부 인민들의 강력한 성원에 일층 고무되면서 미제의 식민지 예속화 정책을 반대하며 쏘미 공동 위원회의 재개와 조선의 민주주의 통일 독립 실현을 요망하여 적극적으로 진출하였다.

로동 계급을 선두로 하는 남조선 애국적 인민들은 특히 1946년 9월 총파업, 10월 인민 항쟁을 비롯하여 1947년 3월 총파업 등에서 자기들의 혁명적 력량과 투지를 강력히 시위하였다.

한편 이 시기 조선의 민주주의적 통일 독립을 진정으로 념원하는 쏘련 정부는 쏘미 공동 위원회 재개와 조선 문제의 해결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성의 있는 노력을 기울였다.

쏘련의 성의 있는 노력과 조선 인민의 일치한 요구, 세계 진보적 여론의 압력에 못 이겨 미 제국주의자들은 쏘미 공동 위원회의 재개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47년 5월 21일에 제 2차 쏘미 공동 위원회가 개최되였다.

당은 쏘미 공동 위원회 재개와 관련하여 수립될 림시 정부에 대한 조선 인민의 통일적인 공동 요구를 제출하며 쏘미 공동 위원회의 성과적 추진을 위한 전체 민주주의 정당 사회 단체들의 행동 통일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당의 지도하에 1947년 6월에 북조선 민전 산하 각 정당, 사회 단체 열성자 대회가 개최되였다. 여기에서 김 일성 동지는 민주주의 통일 정부 수립의 투쟁 방향으로 되는 《민주주의 조선 림시 정부 수립에 관하여 각 정당들과 사회 단체들은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라는 강령적 보고를 진술하

었다.

이 보고는 민주주의 림시 정부 수립에 있어서 민주주의적 제 정당, 사회 단체들의 공동 투쟁의 행동 로선으로 되였는바 이에 기초하여 그들은 《조선 림시 정부의 림시 헌장》과 《림시 정부의 정책》에 관한 쏘미 공동 위원회의 자문서에 대한 답신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그러나 미 제국주의자들은 조선 인민들의 일치한 요구를 거부하고 처음부터 반동 세력이 절대 우세를 차지하는 림시 정부를 조직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회의를 종국적으로 파탄시키려고 시도하였다. 그들은 협의 대상 명부를 작성함에 있어서 수많은 유령 단체들을 조작하여 부당한 주장을 고집함으로써 공동 위원회 사업을 위기에 봉착시키였다.

다른 한편 미제는 남조선 반동 세력을 사촉하여 《반탁 운동》을 재연시키고 민주 진영에 대한 탄압을 강화할 목적으로 소위 《8. 15 폭동 음모 사건》을 날조하여 민주 진영의 8. 15 기념 행사를 비법적으로 중지시킴과 함께 민주주의적 각 정당 사회 단체들을 일제히 습격, 파괴, 폐쇄하고 애국적 인민들을 대량적으로 검거하였다. 남조선에서 일체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 단체들의 활동은 혹독한 탄압을 받게 되였으며 비법화되였다.

그러나 미제의 어떠한 술책과 탄압도 우리 당의 령도하에 날로 장성 강화되는 조선 인민의 민주 력량을 억제할 수 없었으며 미제의 침략적 정체를 은폐할 수 없었다. 국제 협정에 충실하며 조선 인민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는 쏘련 대표단의 확고한 립장과 정당한 주장, 우리 당에 의하여 고무되는 조선 인민들의 완강한 투쟁 앞에서 미제의 침략적 정체는 더욱 백일하에 폭로되게 되였으며 쏘미 공동 위원회를 통하여 달성하려던 그들의 반동적 침략적 시도는 여지 없이 파탄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되자 미 제국주의자들은 쏘미 공동 위원회 사업을 종국적으로 파탄시키고 유엔을 통하여 자기들의 추악한 목적을 달성하려고 1947년 9월 17일 유엔 총회에 조선 문제를

상정시키려고 획책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쏘미 공동 위원회의 사업은 더 이상 진척될 가능성이 없어지게 되였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쏘련 대표단은 1947년 9월 26일에 쏘미 량국 군대를 1948년 초까지 조선으로부터 동시에 철거하고 조선 인민에게 그들 자신이 조선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을 주자는 중대한 성명을 발표하였다.

쏘련 대표단의 이 제안은 모쓰크바 3상 회의 결정의 근본 정신과 기본 원칙에 완전히 부합되며 조성된 정세하에서 조선 문제를 가장 용이하게 또 정당하게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것은 3상 회의 결정이 미제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실행될 수 없는 조건하에서 조선 문제 해결의 길은 오직 조선 인민 자체에게 맡기는 수밖에 없게 되였으며 또한 조선 인민은 로동당의 령도하에 해방후 2년 간의 민주주의 자주 독립 국가 건설을 위한 투쟁 과정에서 풍부한 경험을 축적함과 함께 나라를 능히 운영할 수 있는 자기의 민족 간부를 수 많이 육성하였으며 특히 조국의 통일 독립의 물질적 토대로 되는 북반부의 혁명적 민주 기지를 창설 강화한 제반 조건들은 바로 조선 인민 자신이 자기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실증하여 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외국 군대가 계속 주둔해 있어야 할 아무러한 근거도 없으며 더우기 미군의 남조선 강점으로 조선의 통일 정부 수립이 극도로 저해 당하고 있는 엄연한 사실로부터 출발하여 외국 군대의 철거는 절실한 문제로 제기되지 않을 수 없었다.

때문에 우리 당을 비롯한 민주주의 제 정당 사회 단체들과 전체 인민들은 쏘련 대표단의 새로운 제안을 열렬히 지지하면서 그의 실현을 한결같이 요구하여 나섰다.

그러나 조선으로부터 량군 동시 철거가 자기들의 침략 계획에 결정적 타격으로 된다는 것을 잘 아는 미 제국주의자들은 쏘련의 이 정당한 제안을 거부하고 끝끝내 조선 문제를 유엔 총회에 비법적으로 상정시키였다.

이와 같은 미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 파괴 책동으로 말미암아 쏘미 공동 위원회는 완전히 결렬되였으며 모쓰크바 3상 회의 결정의 실천을 통한 조국의 통일 독립 달성의 가능성은 없어지게 되였다.

그러나 3상 회의 결정 실행을 위한 투쟁 행정에서 우리 당과 조선 인민이 달성한 정치적 성과는 거대하다. 즉 당은 민주 기지 창설 로선에 립각하여 공화국 북반부에 혁명적 민주 기지를 창설 강화함으로써 조국 통일의 물질적 기초를 축성하였으며 이 행정에서 로동 계급의 령도적 역할을 제고하고 로농 동맹에 기초한 혁명 력량을 확대 강화하였다.

또한 이 투쟁 행정에서 우리 당은 조선에 대한 미제의 침략적 본질을 조선 인민과 전 세계 인민 앞에 여실히 폭로하였으며 리 승만 반동 도당들을 조선 인민들로부터 더욱 더 고립시켰다.

이와 같이 2차에 걸친 쏘미 공동 위원회가 미제의 조선에 대한 침략적 책동으로 말미암아 비록 파탄되고 모쓰크바 3상 회의 결정 실현을 통한 조선의 통일 독립 달성의 가능성은 말살되였으나 조선 인민은 당의 령도하에 능히 자체의 손으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달성할 수 있는 강력한 력량으로 장성 강화되였던 것이다. 이는 바로 해방후 복잡한 정세하에서 북반부의 혁명적 민주 기지를 창설 강화한 우리 당의 정책이 얼마나 현명하고 예견성 있는 조치였는가를 더욱 확증하여 준다.

2. 조선 인민 자체의 손에 의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로동당의 투쟁 방책과 그의 실현을 위한 투쟁

우에서 본 바와 같이 조선의 자주 독립과 민주주의적 통일 정부 수립을 근본적으로 원치 않은 미 제국주의자들은 2차에 걸친 쏘미 공동 위원회 사업을 고의적으로 파탄시켰을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를 자기들의 식민지로 만들려는 목적 밑에 쏘미 량국 군대가 조선으로부터 동시에 철거하고 조선 문제의 해결을 조선 인민 자체에 맡기자는 쏘련 정부의 정당한 제의까지도 거부하고 조선 문제를 비법적으로 유엔 총회에 상정시켰다.

미제가 조선 문제를 유엔 총회에 상정시켰다는 사실은 미제의 조선 침략에 대한 로골화를 의미한다. 즉 이때까지는 미제가 모쓰크바 3상 회의 결정을 외곡하면서 쏘미 공동 위원회를 통하여 조선을 식민지화하기 위한 자기의 목적을 추구하여 왔다면 이제 와서는 자기의 가면을 벗어 버리고 공공연하게 국제 공약을 위반하고 3상 회의 결정에 의한 《구속》을 받지 않고 유엔내 추종 국가들을 리용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려 하였던 것이다.

이는 종래의 미제가 추구하여 오던 조선에 대한 식민지 예속화 정책의 완전한 실패를 의미하는 반면에 미제의 침략 정책을 반대하는 조선 인민과 쏘련을 위시한 국제 민주 진영의 력량의 강대성의 증시로 된다.

조선 문제를 유엔 총회에 비법적으로 상정시킨 미 제국주의자들은 유엔의 관례까지 유린하고 조선 인민의 대표의

참가도 없이 그리고 쏘련을 비롯한 민주 진영 국가들의 강경한 항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거수기를 발동하여 소위 《유엔 조선 위원단》을 조선에 파견할 데 대한 결의를 통과시켰다.

소위 《유엔 조선 위원단》의 사명은 1948년 3월 말까지 반동 소굴인 《국민 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유엔 위원단》의 감시하에서 총선거를 실시할 것이며 선거후 《국민 회의》를 소집하고 《국민 정부》를 수립하여 조선에서 《치안 군대》를 조직할 것이였다. 이는 미제가 전 세계 인민들과 조선 인민을 기만하고 유엔의 간판을 리용하여 조선에 대한 침략 정책을 합법화하려는 것이였다.

당은 《유엔 조선 위원단》이란 것은 미 제국주의자들이 조선에 대한 식민지 분할 정책과 남조선 괴뢰 단독 정부 수립을 《합법화》하기 위하여 조작하여 낸 국제적 도구라는 것을 철저히 폭로하면서 그의 입국을 절대 배격할 것을 전체 조선 인민에게 호소하였다.

우리 당의 지도하에 북반부의 전체 인민들은 대중적 시위 운동과 항의로써 《유엔 조선 위원단》을 절대 배격하는 단결된 력량을 시위하였으며 그가 북조선에 발을 붙일 한 치의 여유도 주지 않았다. 또한 남조선에서 로동 계급을 선두로 한 인민 대중은 미제와 국내 반동들의 류혈적인 탄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48년 2월 7일에 있은 《유엔 조선 위원단》 입국 반대 투쟁을 비롯하여 파업과 시위, 동맹 휴학 등 각종 방법으로 이를 견결히 배격하였다.

조선 인민의 이러한 거족적 반대 투쟁에 의하여 전 조선적 범위에서 괴뢰 정부의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해지자 미제는 그 후 비법적인 유엔 소총회의 결의로써 《유엔 조선 위원단》에게 우선 가능한 지역 즉 남조선에서 급속히 단독 선거를 실시할 것을 지시하였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이와 같이 《유엔 조선 위원단》을 추동하여 단독 선거, 단독 정부 수립 음모를 촉진시키면서 다른

편으로는 그를 반대하는 조선 인민에 대한 잔인한 탄압으로 자기의 침략 정책의 실현을 보장하려고 획책하였다.

이리하여 조선을 분할 식민지화하려는 미제의 침략적 기도는 유엔의 간판 밑에 일층 로골화되였으며 우리 국토의 량단과 민족적 분렬의 위기는 더욱 증대되였다.

이러한 정세하에서 로동당 앞에는 미제의 온갖 침략 기도를 분쇄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할 데 대한 새로운 투쟁 방책을 제시하고 전체 조선 인민들을 이 방책 실현을 위한 투쟁에로 적극 조직 동원해야 할 긴급한 과업이 제기되였다.

이러한 정세하에서 조국의 통일 독립을 위한 로동당의 방책에는 조성된 정세에 적응하여 중요한 전술적 변동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없었다.

즉 이때까지 당이 주장하여 온 모쓰크바 3상 회의 결정 실천을 통한 조선의 통일 독립 달성 문제는 금후 그 실현의 가망성이 제거되였으며 그와 동시에 미제의 남조선 단독 선거 음모와 관련하여 국토 량단의 위기가 첨예화된 조건하에서 조성된 위기를 타개하며 조선 문제의 정당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미 제국주의자들의 조선 문제 간섭을 완전히 제거시키는 것이 절실한 문제로 제기되였던 것이다. 이와 함께 벌써 이 시기에 이르러 조선 인민은 능히 자체의 힘으로 자주 독립을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조건하에서 조선 문제 해결을 조선 인민 자신의 손에 맡기는 것은 응당한 일로 제기되였던 것이다.

당은 이러한 조건을 타산한 기초 우에서 외국의 아무러한 간섭도 없이 조선 인민 자체의 손으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쟁취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철저히 의거하여 새로운 조국 통일 방책을 작성하였던 것이다. 그것은 쏘미 량군을 동시에 철거시키며 민주주의적 선거 원칙에 기초하여 전 조선적으로 최고 립법 기관을 선거하고 통일적 중앙 정부를 수립함으로써 조선의 통일 독립을 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이 작성한 이 새로운 조국 통일 방책은 당시 조성된 정

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토대 우에서 맑스—레닌주의 전략 전술을 우리 나라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유일하게 정당한 로선이다.

그것은 이 방책이 조선에 대한 미제의 침략 기도를 파탄시키며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조선 인민의 조국 통일의 념원을 옳게 반영하였다는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방책이 그 실현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타산하여 작성하였다는 데 있는 것이다. 평화적 조국 통일 방책 실현의 현실적 가능성은 첫째로 해방후 우리 당의 현명한 정책에 의하여 창설된 북반부 민주 기지가 정치, 경제, 문화 각 방면에 걸쳐서 공고 발전되였으며 이는 조선 인민 자체의 손으로 조국의 통일 독립을 쟁취할 수 있는 강력한 물질적 력량으로 전변되였다는 것이다. 즉 해방 직후 우리 당은 우리 혁명 발전의 특수성으로부터 출발하여 북반부에 혁명의 강력한 기지——민주 기지를 창설할 데 대한 전략적 로선을 제기하고 그의 관철을 위한 투쟁에로 인민 대중을 조직 동원하였다. 결과에 북반부에서는 반제 반봉건 민주 혁명의 과업이 완수되고 불패의 생활력을 가진 선진적 인민 민주주의 제도가 확립되였다. 이러한 기초 우에서 우리 당은 북반부에서 계속 사회주의로의 과도기의 정치 경제적 임무 수행에로 전체 인민들을 조직 동원하였는바 이로써 창설된 민주 기지는 전국적 규모에서의 반제 반봉건 민주 혁명의 승리적 완수를 위한 정치 경제적 기지로 더욱 공고 발전되였으며 로동 계급의 령도하에 로농 동맹을 핵심으로 한 인민 대중의 정치 도덕적 통일이 철석 같이 강화되였다. 우리 당은 바로 이러한 물질적 력량에 의거하여 외국의 간섭이 없이 조선 인민 자체의 손으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하였다.

둘째로 미제의 민족 분렬 정책이 로골화되고 그의 침략성이 백일하에 폭로됨에 따라 국내에 있어서 정치 세력 관계가 로동당을 선두로 한 민주 진영에 더욱 유리하게 변경되였다는 것이다.

조선 인민의 일치한 념원을 무시하고 2차에 걸치는 쏘미

공동 위원회를 파탄시킨 미제가 조선에 대한 식민지 분할 정책을 계속 추구하면서 남조선에서 단독 괴뢰 정부 조작 음모를 로골적으로 감행함에 따라 전체 조선 인민들은 미제의 침략적 정책와 그의 주구 리 승만 도당의 매국적 본질을 더욱 똑똑히 인식하게 되였다.

장구한 일제 식민지 통치하에서 식민지 노예 생활을 직접 체험한 남반부의 혁명적 로동 계급을 비롯한 전체 근로 인민들은 북반부 인민들과 함께 우리 당의 주위에 더욱 굳게 결속되여 미제의 단선 단정 음모를 결정적으로 반대하고 조국의 민주주의적 통일 독립을 위하여 더욱 완강한 투쟁을 전개하게 되였다.

뿐만 아니라 미제의 침략적 정책가 더욱 로골화되고 이를 반대하는 인민 대중의 혁명적 기세가 급격히 앙양됨에 따라 종전까지 미제의 침략적 본질을 똑똑히 알지 못하고 그 정책을 부분적으로 지지하였거나 혹은 중립적 립장을 취하여 온 중간 정당 및 계층들이 미제의 남조선 단독 정부 조작 음모를 반대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우리 당의 정책을 결정적으로 지지하여 나섰다. 이와 같은 정세는 중립적 립장에서 동요하던 남반부 중간층을 민주 진영에 인입할 수 있는 현실적 조건이 조성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였다.

또한 남반부에서 이때까지 미제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였던 일부 우익 정당들이 미제에 의한 국토 량단과 민족 분렬의 위기가 첨예화됨에 따라 민주 진영에 접근하려는 지향을 표명하기 시작하였다.

이리하여 미제와 리 승만 도당 등 극우익 반동 세력은 전체 인민들로부터 더욱 철저히 배격 고립되였으며 우리 나라의 정치적 및 계급적 력량 관계의 편성은 우리 당의 령도하에 로동 계급을 핵심으로 한 민주 진영에 훨씬 유리하게 전변되였다. 이러한 정치 세력 관계의 변동은 우리 당으로 하여금 조선의 모든 민주주의적 애국적 력량을 우리 당 주위에 집결시켜 놈들의 단선 단정 음모를 파탄시키고 조선 인민 자체의 손으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질 수 있게 하였다.

세째로는 국제 무대에서 쏘련을 선두로 한 민주 진영의 위력이 날로 장성 강화되고 있는 반면에 제국주의 진영은 날로 약화되여 가고 있다는 사정이다.

우리 당은 이상과 같은 제 조건을 정확히 분석한 기초 우에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방책을 수립하면서 그를 실천하기 위한 당면한 투쟁 대책을 강구하였다.

이러한 대책의 하나로서 당은 조선 림시 헌법 초안의 작성과 그의 전 인민적 토의 사업을 조직 추진시켰다.

이 사업의 전개는 북반부에서 이미 달성한 민주 건설의 성과들을 법적으로 공고히 하여 북반부 민주 기지를 더욱 강화함에 있어서 의의를 가질 뿐만 아니라 전체 조선 인민에게 우리 조국이 나아갈 길을 명시해 주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투쟁에로 그들을 추동시킴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로동당의 지도하에 1947년 11월에 조선 림시 헌법 제정 위원회가 구성되여 림시 헌법 초안 작성 사업이 진행되였으며 1948년 2월~4월에는 이 헌법 초안을 전 인민적 토의에 회부하였다.

헌법 초안의 전 인민적 토의를 통하여 조선 인민은 앞으로의 투쟁 목표를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였으며 남조선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하며 통일적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창건을 위한 그들의 투쟁 열의는 일층 제고되였다. 이리하여 전체 조선 인민은 우리 당 주위에 더욱 튼튼히 집결하여 우리 당의 령도하에 자체의 손으로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투쟁에로 결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되였다.

다른 한편 우리 당은 미제와 리 승만 도배들이 기도하는 단독 선거에 대처하여 전 조선의 광범한 민주주의적 애국적 력량들과의 단결을 더욱 강화하며 민주주의 제 정당 사회 단체들의 행동 통일을 철저히 보장하는 원칙에서 망국적 남조선 단독 선거에 대한 전면적 보이꼬트 전술을 취할 대책을 강구하였다.

당이 제기한 단선 보이꼬트 전술은 당시 민주 진영에 더욱

유리하게 전변되는 국내 정치 세력 관계와 날로 장성하는 인민 대중의 혁명적 기세를 옳게 타산한 정확한 투쟁 대책이였다.

당은 단선 보이꼬트 투쟁을 통하여 한편으로는 남조선 단독 선거를 파탄시킴으로써 조성된 국토 량단과 민족 분렬의 위기를 타개하며 다른 편으로는 국내 애국적 민주 력량의 단결을 더욱 강화하여 조국의 통일 독립을 촉진시키려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평화적 조국 통일과 단독 선거를 보이꼬트할 데 대한 당의 방침은 1948년 3월 9일 민전 중앙 위원회 제 25차 회의에서 진술한 김 일성 동지의 보고에서 명확히 천명되였다.

《남조선 반동적 단독 정부 선거를 반대하며 조선의 통일과 자주 독립을 위하여》라는 보고에서 김 일성 동지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천명하였다.

《우리 민족이 다시 소생하는 길은 오직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민주주의적 발전의 길입니다. 우리의 요구는 전과 같습니다. 우리의 전체 인민은 일반적, 직접적, 평등적인 선거권에 기초하여 비밀 투표로써 최고 립법 기관을 전 조선적으로 선거할 것을 주장합니다.

이와 같이 선거된 진정한 인민의 최고 립법 기관에서 헌법을 승인하며 민족적 융성과 인민을 행복의 길로 인도하고 진정한 민주주의적 인민 정부를 반드시 조직하여야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외국 군대가 다 조선의 국토로부터 동시에 철거한다는 조건하에서만이 가능합니다》(김 일성 선집 1954년 판 제 2권 17～18 페지)라고 강조하면서 남조선에서 반동들이 기도하고 있는 선거 희극에 참가하지 말며 선거를 배척하는 운동을 광범히 전개하여 놈들의 분렬 책동을 파탄시킴에 전력을 다할 것을 전체 인민들과 애국적 인사들에게 호소하였다.

김 일성 동지의 이 보고는 남조선 단독 선거에 대한 우리 당의 태도이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우리 당의 기본 방침이며 행동 강령이였다.

당은 이러한 조국 통일 방책을 전 당과 전체 인민에게 천명

하면서 그 수행을 위한 투쟁에로 국내의 일체 애국적 민주 력량을 궐기시키기 시작하였다.

여기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제기된 과업은 조국 통일의 물질적 담보인 북반부 민주 기지를 일층 강화하는 것이였다. 이를 위하여서는 민주 기지를 창설하며 강화하기 위한 투쟁의 성과를 총화 분석하고 경험을 일반화하는 동시에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 경제 건설을 더욱 힘 있게 추진시키기 위한 명확한 과업들을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였다. 또 북반부 민주 기지를 더욱 강화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당 건설의 성과들을 총화하고 그 경험을 일반화함으로써 우리 혁명의 참모부인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일층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였다. 이 모든 문제 해결을 위하여 1948년 3월 말에 우리 당 제 2차 대회가 소집되였다.

대회에서는 당시 우리 나라에 조성된 정세를 심각히 분석하고 국토의 량단과 민족 분렬의 위기를 타개하고 조국의 통일 독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 중앙 위원회가 제기한 평화적 조국 통일 방책을 전적으로 찬동하고 그의 실현을 위한 투쟁을 백방으로 강화할 것을 강조하였다. 동시에 대회는 이를 성과적으로 수행 보장하기 위하여 북반부의 민주 기지와 우리 혁명의 참모부인 우리 당을 일층 강화하기 위한 전투적 과업들을 제시하였다.

민족적 분렬의 위기가 날로 첨예화되는 정세하에서 소집된 2차 당 대회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당의 공고화를 위한 투쟁에 있어서 획기적 사변으로 되였다.

대회는 조성된 위기를 타개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새로운 전망을 열어 주었으며 당의 조국 통일 방책 실현을 위한 투쟁에로 전 당과 전체 인민들을 힘차게 궐기시켰다.

당은 2차 당 대회 결정에 근거하여 전 조선의 광범한 민주주의적 애국적 력량의 단결을 더욱 강화하며 그들의 행동 통일을 보장함으로써 남조선 단독 선거를 전면적으로 보이꼬트하여

그를 파탄시키는 것이 당 앞에 제기된 당면한 정치적 중요 과업이라고 인정하고 그를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하였다.

당은 이미 중앙 위원회 결정에 근거하여 남조선 단독 선거를 반대하며 우리 당의 조국 통일 방책 실현을 위한 투쟁에서 전 조선 애국적 민주 력량의 행동 통일을 보장할 목적으로 1948년 3월 25일 민전 중앙 위원회 제 26차 회의를 통하여 북조선 민주주의 제 정당, 사회 단체들과 함께 《단선 단정》을 반대하며 조국 통일을 념원하는 남조선 제 정당 사회 단체들에게 련석 회의를 소집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때에 당내에 잠입하고 있던 박 헌영—리 승엽 도당은 남조선에서 련석 회의 소집에 대한 준비 사업을 고의적으로 태공하는 방법으로 남북 조선의 일체 애국적 민주 력량의 행동 통일을 파괴하고 당의 평화적 조국 통일 방책의 실현을 파탄시키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당 중앙 위원회는 제때에 박 헌영—리 승엽 도당들의 책동을 분쇄하고 련석 회의 소집에 대한 우리 당의 방침과 그 의의를 대중 속에 침투시킴으로써 그 준비 사업을 추진시키였다.

련석 회의 소집에 대한 우리 당의 방침과 그 의의가 남조선의 각계 각층의 인민 대중 속에 광범히 침투됨에 따라 남조선 민전 산하 각 정당, 사회 단체들은 물론 중간 정당들도 이를 적극 지지 환영하여 나섰으며 민족적 량심을 저버리지 않은 일부 우익 정당들까지도 이를 지지 찬동하였다. 이때 김 구, 김규식까지도 이에 대하여 《민족적 서광이며 성공을 확신한다》고 담화를 발표하였다. 이리하여 남북 조선의 일체 애국적 인민들의 이목은 련석 회의 소집 문제에 집중되였다. 다만 리 승만, 김 성수 등 반역 도당만이 이를 반대하여 나섰다.

력사적인 남북 조선 제 정당 사회 단체 대표자 련석 회의는 1948년 4월 20일에 평양에서 개최되였다.

회의에는 조국의 통일 독립을 념원하는 남북 조선 56개의 민주주의적 애국적 제 정당 사회 단체 대표 545명이 참가하였다.

회의에는 전체 조선 인민의 각계 각층의 대표들이 참가하였는바 민전 산하 각 정당 사회 단체들은 물론 남조선의 중간층의 제 정당, 사회 단체들 심지어는 일부 우익 정당의 대표까지도 참석하였다.

회의에서 김 일성 동지는 우리 나라에 조성된 정치 정세와 이를 타개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대책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김 일성 동지는 자기의 보고에서 조성된 정치 정세하에서 전체 조선 인민 앞에 나서는 최대의 정치적 과업은 남조선을 미제의 식민지로 만들려는 반인민적 망국 단선을 반대 보이코트함으로써 이를 파탄시키고 광범한 민주주의적 원칙에서 통일적인 중앙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는 데 있다고 지적하였다.

계속하여 김 일성 동지는 조선 인민 앞에 나선 이 당면한 정치적 과업을 성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당별, 종교별, 정치적 견해의 여하를 불문하고 단독 선거를 반대하는 조선의 일체 민주주의적 애국적 력량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고 미제와 리 승만 도당들을 인민들로부터 더욱 더 고립시키는 투쟁이 그 어느 때보다도 긴급하고 중요한 과업으로 제기된다고 지적하였다.

김 일성 동지의 보고는 회의 참가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회의는 김 일성 동지의 보고에 근거하여 조국에 조성된 정치 정세를 심의하고 구국 투쟁 대책을 천명한 《조선 정치 정세에 관한 결정서》를 채택하였다.

결정에서는 전 조선의 민주주의적 애국적 제 정당, 사회 단체들은 북조선의 민주 개혁과 민주 건설의 성과들을 높이 찬양하면서 이에 기초하여 조국 통일을 달성하여야 한다는 것을 일치하게 표명하였다. 동시에 결정에는 남북 조선 제 정당, 사회 단체들이 자기의 전 력량을 총집결하여 단선 보이코트 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함으로써 남조선 단독 선거를 파탄시킬

것이며 조선에서 외국 군대를 즉시 철거시키고 조선 인민 자체의 손으로 통일적 민주주의 자주 독립 국가 건설을 위하여 강력히 투쟁할 데 대한 결의를 표명하였다.

동시에 회의는 조선에서 쏘미 량국 군대가 속히 동시 철거할 것을 요구하는 요청서를 쏘미 량국 정부에 각각 보내였다.

회의에서는 또한 단독 선거를 절대 배격할 것을 호소하는 전 조선 동포에게 보내는 격문을 채택하였으며 단선 보이꼬트 투쟁을 통일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남조선 단독 선거 반대 투쟁 전국 위원회》를 결성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 회의의 뒤를 이어 4월 30일에는 남북 조선 제 정당, 사회 단체 지도자들의 협의회가 진행되였는바 이 협의회에서는 구국 대책에 대한 공동 성명서를 채택 발표하였다.

이 공동 성명서에서 남북 조선 제 정당, 사회 단체들은 쏘미 량국 군대의 동시 철거를 요구하고 외국 군대가 철거한 이후에는 남북 조선 제 정당 사회 단체 대표들로써 전 조선 정치 회의를 소집하여 조선 인민의 각계 각층을 대표하는 민주주의 림시 정부를 조직할 것을 천명하였다. 동시에 성명서는 전체 조선 인민의 의사에 배치되는 남조선 단독 선거와 그에 기초하여 조직하려는 어떠한 단독 정부든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성명하였다.

이와 같이 4월 남북 련석 회의는 자기 사업의 전 행정을 통하여 시종 일관 조성된 민족적 분렬의 위기를 타개할 목적으로 망국적 단독 선거를 보이꼬트하며 민주주의적 애국적 력량을 단결시켜 조국의 통일 독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일치한 결의를 표명하였다.

국토의 량단과 민족적 분렬의 위기가 매우 첨예화된 정세하에서 소집된 4월 남북 련석 회의는 조국의 통일 독립을 위한 조선 인민의 투쟁에 있어서 거대한 력사적 사변으로 된다.

4월 남북 련석 회의는 해방후 처음으로 되는 전 조선의 제 정당, 사회 단체들의 회합이였으며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에

로 민주주의적 애국적 력량의 단결을 확대 강화함에 있어서 거대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련석 회의에서 우리 당의 령도권이 확고히 보장되고 당이 제기한 평화적 조국 통일 방책을 찬동하여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게 되였다는 사실은 우리 당의 통일 전선 정책의 승리를 실증하는 것이였으며 앞으로 우리 당의 령도하에 민주주의적 애국적 력량의 통일 단결을 강일층 확대 강화할 수 있는 기초를 축성하였다는 것을 증시하는 것이였다.

동시에 4월 남북 련석 회의는 남조선 우익 진영 내부의 분렬을 조성함으로써 미제와 리 승만 역도들을 인민들로부터 더욱 더 고립시켰으며 그들의 반동 정책을 전 세계에 폭로하고 그들의 력량을 일층 약화시키였다.

4월 남북 련석 회의는 외래 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강요된 민족적 분렬의 위기를 타개하고 민족적 자주권을 고수하기 위하여서는 정치적 견해, 신앙, 교육, 재산 정도의 차이 여하를 불문하고 민족적 량심을 가진 모든 민주주의적 애국적 력량이 능히 단결될 수 있으며, 조선 인민 자체의 힘으로 조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으며 민주 진영의 장성과 결속을 시위하였다..

4월 남북 련석 회의를 계기로 국내 정치 세력 배치는 민주 진영에 더욱 더 유리하게 전변되였으며 망국적 단독 선거를 반대하는 전 인민적 구국 투쟁은 고도로 앙양되였다.

전체 조선 인민들은 4월 련석 회의의 사업과 그 호소를 절대 지지 찬동하며 그에 고무되면서 로동당의 지도하에 망국적 《5. 10 단선》을 반대하는 거족적 구국 투쟁에 한결 같이 궐기하였다.

이와 같이 4월 남북 련석 회의를 계기로 단독 선거를 반대하는 인민들의 기세가 앙양된 조건하에서 자기들의 실패를 예측한 미제와 리 승만 역도들은 강압적 방법으로 《선거》를 감행할 것을 획책하면서 인민들에 대한 공갈과 위협, 탄압 정책을 일층 강화하였다.

단독 선거가 박두함에 따라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은 군대, 경찰, 테로단 등 온갖 강압적 수단을 다 동원하는 한편 간교한 기만 술책 등 각종 흉악한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단선》 감행을 시도하였다.

이리하여 망국적 단독 선거는 무장한 미국 군대가 직접 동원되고 경찰, 테로가 횡행하는 환경 속에서 감행되였다. 그러나 이 망국 선거에 참가한 정당은 한국 민주당, 대한 로총, 대한 농총, 민족 청년단 등 매국노 리 승만, 김 성수 도당 뿐이였으며 광범한 군중을 망라한 모든 좌익 정당들과 중간 및 민족적 량심을 저버리지 않은 일부 우익 정당, 사회 단체들은 이를 거부 배격하여 나섰다.

단선 보이꼬트 투쟁에 궐기한 혁명적 남조선 인민들은 반동 통치 기구들과 《선거》 장소를 파괴 소각하며 경찰서와 관청을 습격 파괴하였다. 남조선 각지에서 전화, 전신, 통신이 단절되였으며 철도 교량 등이 파괴되였다. 특히 제주도에서는 단선을 반대하는 인민 봉기가 폭발되였으며 이를 계기로 하여 도내 각지에서 전개된 인민 유격대의 맹렬한 활동으로 말미암아 선거는 전혀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다. 남조선 전 지역은 완전히 혼란 상태에 빠졌으며 전체 애국적 인민들은 거의 선거에 참가하지 않았다.

망국적 단독 선거에 참가한 것은 한 줌도 못 되는 친일파 민족 반역자들과 무력과 폭력과 테로단의 강압에 의하여 선거장으로 몰려 나온 소수의 사람들 뿐이였다.

이와 같이 우리 당의 령도하에 로동 계급을 선두로 한 전체 애국적 조선 인민들은 자기의 영웅적 투쟁으로써 놈들의 《선거》를 완전히 파탄시켰다.

그리하여 미제의 남조선 단독 선거의 반인민적 본질은 전 세계에 남김 없이 폭로되였으며 놈들의 새로운 침략적 기도는 조선 인민의 거족적 투쟁에 의하여 산산이 분쇄되고야 말았다.

반면에 이 투쟁 과정을 통하여 로동 계급을 선두로 한 조선 인민들은 자기의 혁명적 투지, 단결된 력량의 강대성을 시위하

였으며 자기 력량에 대한 자신심을 갖게 되였다.

이는 곧 우리 당의 단선 보이꼬트 투쟁의 승리인 동시에 적의 수치스러운 패배인 것이다.

이 승리는 우리 당의 정확한 지도하에 전 조선의 애국적 민주주의적 제 정당, 사회 단체의 행동 통일과 혁명적 로동 계급을 비롯한 근로 인민들의 영웅적인 투쟁에 의하여 달성된 것이다.

이러한 모든 사실은 우리 당의 단선 보이꼬트 투쟁 로선이 정확하였다는 것을 확증한다.

로동당은 남조선 단독 선거를 보이꼬트하는 투쟁을 통하여 조선 인민을 정치적으로 더욱 훈련시켰으며 그들을 통일적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창건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투쟁에로 힘차게 추동하였다.

우리 당의 지도하에 인민들의 전면적인 단선 보이꼬트 투쟁에 의하여 《5. 10 단선》이 파탄되였음에도 불구하고 놈들은 파렴치하게도 《선거》 결과를 허위 날조하여 《유엔 조선 위원단》의 미명하에 친미, 친일파, 민족 반역자, 지주, 예속 자본가 등 극악한 우익 반동들로써 반인민적이며 매국적인 남조선 괴뢰 《국회》와 만고의 역적 리 승만을 괴수로 한 괴뢰 단독 정부를 조작해 냈다. 그들이 조작한 남조선 《국회》에는 단 한 명의 로동자, 농민의 대표도 없었으며 좌익 및 중간 정당은 물론 애국적 량심을 가진 우익 정당들의 대표도 전연 없었다.

조작된 남조선 단독 정부는 미제의 침략 도구로서 그의 지시 밑에 민족 분렬과 동족 상잔의 내란 도발을 준비하며 조선 인민의 온갖 민주주의적 애국적 력량을 말살하고 조선을 미제의 영원한 식민지로 전락시킬 것을 자기의 기본 임무로 내세웠다. 때문에 남조선 괴뢰 정권의 출현은 조선의 통일 독립과 민주 발전에 있어서 엄중한 장애물로 되였으며 국토의 량단과 민족적 분렬의 위기를 일층 격화시켰다. 미제는 반동적 괴뢰 정권을 조작한 후 남조선에 자기 군대를 장기 주둔시키며 우리 조국의 인공적인 분렬 상태를 영구화하려는 침략적 책동을 일

층 강화하였다.

조국에 조성된 이러한 정치 정세하에서 우리 당 앞에는 조성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새로운 결정적인 구국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긴급한 과업이 제기되였다.

만일 이때에 당이 조성된 위기를 타개할 새로운 대책을 강구하며 그의 실현을 위한 투쟁을 조직 전개하지 않고 반동들의 침략적 책동에 대하여 소극적이고 방어적 태도를 취한다면 당은 조선 인민의 신망을 상실하고 대중으로부터 고립될 것이며 인민 대중은 반동 공세 앞에서 명확한 목표가 없이 방황하게 될 것이다. 반면에 미제와 리 승만 역도들의 반동 공세는 이러한 기회를 리용하여 더욱 강화될 것이였다.

당 중앙 위원회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서 목전의 림박한 엄중한 사태를 타개하고 조선 인민의 손으로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결정적 구국 대책을 강구하였다.

당이 이때에 강구한 결정적 구국 대책은 전체 민주주의적 애국적 력량을 조직 동원하여 남북 조선을 통한 최고 립법 기관을 선거하고 공화국 헌법을 실시하며 조선 인민의 각계 각층을 대표하는 진정한 중앙 정부를 조직함으로써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을 창건할 것이였다.

그런데 우리 당이 수립하려는 통일적인 중앙 정부는 미제와 리 승만 역도들이 남조선에서 조작하여 낸 괴뢰 정부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우리가 수립하려는 중앙 정부는 남북 조선을 통한 총선거에 의거하여 수립되는 진정한 인민 정부로 될 것이며 이 정부의 과업은 우선 조선으로부터 외국 군대를 철거시키고 조국의 통일을 달성하며 전 조선적 범위에서의 반제 반봉건적 민주 혁명 과업의 수행과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다. 때문에 우리 당이 제기한 평화적 조국 통일에 대한 결정적 구국 대책은 조성된 정세하에서 민족적 분렬의 위기를 타개하며 조국의 통일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 투쟁 대책으로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대책의 실현은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창건에 대한 조선 인민의 세기적 숙망을 달성시켜 주며 조선을 분할 식민지화하려는 미제 침략 정책에 대한 결정적 타격으로 된다.

우리 당의 이러한 결정적 구국 대책은 1948년 6월 29일에 소집된 남북 조선 제 정당, 사회 단체 지도자 협의회에서 진술한 김 일성 동지의 보고 《남조선 단독 선거와 관련하여 우리 조국에 조성된 정치 정세와 조국 통일을 위한 장래 투쟁 대책》에서 천명되였다.

김 일성 동지는 자기의 보고에서 조국에 조성된 정세하에서 미군의 철거를 기다리기만 하고 남조선 반동 정권이 강화되는 것을 방관시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조국의 통일 독립과 인민들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결정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겠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에게는 이 결정적인 대책을 실현할 수 있는 물질적 력량이 이미 구비되여 있다는 것을 명시하였다.

그것은 조선 인민에게는 통일적 자주 독립 국가 건설의 강력한 정치 경제적 토대인 민주 기지와 인민 정권하에서 민주주의와 자유가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직접 체험한 북조선 인민이 있다는 것이다.

북조선 인민들은 자기의 자유와 권리를 고수하기 위하여 미제와 리 승만 역도들을 반대하는 투쟁에 궐기하고 있었으며 남조선 인민들은 북조선 인민들의 투쟁 성과에 고무되면서 민주주의와 자유와 행복을 요구하여 미제와 리 승만 역도들을 반대하는 투쟁에 궐기하고 있었다. 이리하여 남북 조선에 있어서 모든 민주주의적 애국적 력량은 조국의 통일 독립과 민주화를 위한 공동의 투쟁 과정에서 통일 단결되여 있었으며 우리 당의 령도하에 자주 독립 국가 건설을 위한 투쟁에 궐기하고 있었다.

이러한 력량에 의거하여 당은 조국 통일을 위한 결정적 구국 대책을 수립하게 되였던 것이다.

협의회는 김 일성 동지의 보고에 근거하여 우리 당의 평화

적 조국 통일을 위한 결정적 구국 대책을 전적으로 찬동하고 수립될 최고 인민 회의와 중앙 정부의 당면한 중요 과업은 전 조선적으로 외국 군대의 동시 철거를 실현시키는 데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당이 제시한 결정적 구국 대책은 전체 조선 인민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았으며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로 인민들을 무한히 고무 추동하였다.

최고 인민 회의 선거의 날은 8월 25일로 결정되였다.

총선거를 앞두고 7월 9일 북조선 인민 회의 제 5차 회의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헌법 초안을 북조선 지역에서 우선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조치는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수립에 대한 조선 인민의 투쟁 의욕과 승리의 자신심을 일층 제고시키며 최고 인민 회의 선거 승리를 위한 투쟁에로 그들을 힘차게 고무 추동함에 있어서 거대한 의의를 가졌다.

최고 인민 회의의 선거는 우리 인민의 생활에서 일찌기 볼 수 없었던 가장 커다란 정치적 사변이였다. 때문에 당은 이 선거 사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전 당의 력량을 조직 동원하였다.

7월 13일에 진행된 당 중앙 위원회 제 2차 회의는 공화국 헌법의 실시와 최고 인민 회의 총선거에 있어서의 당 단체들의 과업에 대하여 토의하고 력사적인 총선거의 승리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투쟁 과업을 제시하고 전 당을 선거 승리를 위한 투쟁에로 힘차게 동원하였다.

또한 당은 최고 인민 회의 선거를 실시하고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을 창건하기 위한 력사적 과업을 승리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이 투쟁을 조직 지도해야 할 우리 당의 지도적 역할을 더욱 제고시켜야 한다고 인정하였다.

여기에서 당 중앙 위원회는 남북 조선을 통한 총선거라는 단일한 중요한 과업이 제기되고 있으며 공화국 창건후에는 공화국의 기치하에 전 조선적으로 반제 반봉건적 민주 혁명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게 되는 조건하에서 남북 조선의 우리 당 단체들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를 강화함으로써

당면한 최고 인민 회의 선거 사업의 승리를 확보하고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을 더욱 강력히 진행하기 위하여 남북 조선 로동당의 련합 중앙 위원회를 창설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하였다.

이리하여 1948년 8월 남북 조선 로동당 련합 중앙 위원회가 창설되였으며 그의 위원장으로 김 일성 동지를 선거하였다. 그 결과 조국의 통일 독립 달성을 위한 투쟁에서 당의 전투력과 통일적 령도는 일층 강화되였다.

이와 함께 당은 선거 운동을 전개함에 있어서 민전 산하 각 정당, 사회 단체들과 선거 쁠럭을 형성하고 행동 통일을 강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으며 광범한 선거 선전 사업과 조직 지도 사업을 높은 정치적 수준에서 보장하였다.

특히 선거일이 박두한 8월 23일에 평안남도 강동군 승호 선거구 선거자들의 집회에서 진술한 김 일성 동지의 연설은 인민들의 정치적 열성을 일층 제고시킴에 있어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였다. 김 일성 동지는 이 연설에서 최고 인민 회의 선거가 가지는 거대한 정치적 의의를 강조하면서 조국과 인민을 사랑한다면 누구나 다 같이 8. 25 총선거에 참가하여 민전 공동 립후보자에게 투표하라고 전체 인민에게 호소하였다.

전체 조선 인민들은 김 일성 동지의 호소를 받들고 《모두 다 8. 25 선거에로!》라는 구호하에 최고 인민 회의 선거에 한사람 같이 참가하게 되였다.

북반부 인민들은 인민 정권이 보장하여 주는 완전히 자유로운 정치적 분위기 속에서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비밀 투표의 방법으로 선거를 진행하였다. 북반부의 총유권자 중 99.97%가 선거 투표에 참가하였다. 그리고 전 투표자의 98.49%가 민주주의 민족 통일 전선에서 추천한 공동 립후보자들을 찬성하여 투표하였다.

한편 남반부에서는 미제와 리 승만 역도들의 야수적 탄압과 테로가 가해지고 있었으며 박 헌영—리 승엽 도당들의 암해 공작이 진행되고 있은 곤난한 조건하에서도 우리 당와 진실한

당원들의 주동적 역할과 광범한 인민 대중의 앙양된 애국적 열의에 의하여 총유권자의 77.52%가 선거에 참가하였다.

이리하여 우리 당의 령도하에 최고 인민 회의 선거는 빛나는 승리로서 완수되였다.

8. 25 총선거의 결과 572명의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들이 선출되였는데 그의 구성으로 보면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 각층의 대표로 되여 있었다.

이와 같은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 선거의 승리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우리 당의 결정적 구국 대책이 정당하였으며 그 승리를 보장하기 위한 우리 당의 전 당적으로 되는 동원 조직자적 역할이 거대하였다는 것을 실증하여 주었다.

8.25 총선거의 승리는 미 제국주의자들과 남조선 반동 괴뢰 도당들에 대한 민주 력량의 장엄한 시위로 되였으며 조선 인민의 정치—도덕적 통일과 단결의 강화를 표현한 것으로 된다.

총선거의 승리는 조국의 통일 독립과 민주화를 위하여 투쟁하는 조선 인민의 불굴의 투지를 보여 주었으며 조선 인민이 자주 독립할 능력을 훌륭히 가졌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 주었다.

최고 인민 회의 선거의 승리는 또한 조선을 분할 식민지화하려는 미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정책에 대한 강력한 타격으로 되였다.

8.25 선거의 빛나는 승리에 기초하여 조선 인민의 각계 각층을 대표하는 진정한 인민의 주권 기관이며 조선에서 유일한 최고 주권 기관인 최고 인민 회의가 형성되였다.

1948년 9월 력사적인 최고 인민 회의 제 1차 회의가 소집되였으며 회의에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창건을 선포하였다.

회의는 또한 북조선 인민 회의가 준비하였고 북조선 지역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던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헌법 초

안을 기본으로 하여 우리 나라 기본법으로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헌법을 채택하였다.

회의는 국가 정권의 최고 집행 기관으로서의 공화국 중앙 정부를 조직하였으며 김 일성 동지를 내각 수상으로 임명하였다.

회의에서 김 일성 동지는 조국의 완전 통일과 부강한 민주주의 국가 건설을 위한 투쟁 과업을 천명하는 공화국 정부 정강을 발표하였다.

최고 인민 회의 제 1차 회의는 국토 완정과 민족적 통일을 하루 속히 실현하기 위하여 쏘미 량군 동시 철거에 대한 요청서를 쏘미 량국 정부에 보내였다.

이와 같이 하여 창건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은 조선 인민의 영광스러운 조국으로 되였으며 이때로부터 조선 인민은 우리 나라 력사에서 처음으로 로동 계급이 령도하는 근로 인민의 진정한 국가 주권을 가지게 되였다. 이는 우리 인민이 자기의 혁명 투쟁 력사에서 쟁취한 가장 위대한 력사적 전취물이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은 일찌기 반일 무장 투쟁 시기에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이 주권 쟁취를 위한 간고한 투쟁 속에서 이룩한 고귀한 혁명 전통을 계승하였으며 조국의 자유와 해방에 대한 우리 민족의 세기적 념원을 구현하였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의 창건은 조국의 통일 독립과 민주주의적 발전을 위한 투쟁에 있어서 획기적인 전진을 가져왔으며 공화국은 조선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로 되였다.

공화국 창건을 계기로 하여 조선 문제 해결의 현실적 주도권은 더욱 조선 인민 자신에게 속하게 되였으며 조선 인민은 외국의 어떠한 내정 간섭도 허용하지 않고 자기 운명을 자체로 해결할 수 있는 력량을 내외에 증시하였다. 그리하여 공화국 창건을 계기로 조선으로부터의 외국 군대 철거 문제는 더욱 당면한 것으로 되였으며 조선 문제를 조선 인민 자신에게 맡길 데

대한 우리 인민의 요구와 투쟁은 일층 앙양되여 갔다.

우리 당은 공화국이 창건된 이후 공화국의 대내외적 위신을 백방으로 제고시키면서 그의 기치하에 나라의 통일과 전국적 범위에서 반제 반봉건적 민주 혁명 과업 및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가강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당은 여기에 있어서 국제 민주 진영과의 련계를 더욱 강화하고 그에 확고히 의거하는 문제는 우리 혁명 과업 수행에 있어서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인정하고 쏘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과의 친선적 국교 관계를 급속히 설정함에 노력하였다.

이 나라들과의 국교 관계의 설정은 청소한 공화국의 국제적 위신을 더욱 제고시켰으며 우리 나라가 사회주의 진영의 일원으로서 그에 의거하여 자기 혁명 과업을 강력히 추진시킬 수 있는 믿음직한 국제적 담보를 가지게 하였다.

한편 공화국 창건과 관련하여 항상 조선 인민의 민족적 리익과 민주주의적 발전을 념원하는 위대한 쏘련은 쏘미 량군 동시 철거에 대한 최고 인민 회의의 요청을 수락하고 1948년 말까지 북조선 지역으로부터 자기 군대를 솔선 철거하였다. 쏘련 정부의 이 숭고한 행동은 조선 인민에 대한 진정하고도 성의 있는 친선적 관계의 표현이였으며 오직 쏘련은 우리 민족의 해방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독립과 자유를 옹호하는 가장 친근한 벗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백히 실증하였다. 동시에 이 조치는 남조선을 강점하고 장기 주둔을 획책하는 미군의 침략적 본질을 날날이 폭로하여 그가 계속 남조선에 남아 있을 하등의 근거와 구실을 가질 수 없게 하였으며 조선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쏘련 군대의 철거를 계기로 하여 조선 강토로부터 미군 철거를 요구하는 조선 인민의 투쟁은 고도로 앙양되였으며 세계의 여론은 더욱 높아졌다.

이러한 정세에 당황한 미제는 조선 인민의 투쟁과 세계 여

론이 두려워 인민들을 기만하기 위하여 남조선 미 주둔군 《일본 이동》, 《일부 철퇴》 등 허위적인 풍설을 전파시키는 한편 미군 장기 주둔의 구실을 만들기 위하여《북조선 공산주의의 위협》이니 《인민군 남하》니 하는 등의 허설을 날조하여 류포시켰다.

뿐만 아니라 미군은 조선에서 단시일내에 철거할 수 없다고까지 떠들기 시작하였으며 더 나아가서 1948년 11월 30일에는 조선 인민의 강력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리 승만 괴뢰 《국회》를 통하여 매국적이며 반인민적인 《미군 장기 주둔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남조선에서 자기 군대의 장기 주둔을 합리화하려고 획책하였다.

그러면서 미제는 남조선을 계속 강점하고 그를 영영 자기의 식민지 군사 기지로 전락시키기 위한 침략 정책을 일층 강화하는 길에 들어 섰다.

미제는 남조선에서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부문에 걸쳐 일체 지배권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한미 경제 원조 협정》을 비롯한 각종 침략적 《협정》을 리 승만 괴뢰 정부와 체결하였다. 또한 그들은 남조선을 완전히 자기들의 군사 기지화하기 위하여 리 승만 괴뢰 군대를 대대적으로 조직 편성하며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군용 비행장과 항구 및 전략상 중요 도로들을 신설 또는 확장하였다.

이와 함께 남반부 인민들에 대한 가혹한 파쑈 폭압 통치를 강화하면서 애국적 력량에 대한 야수적 탄압과 만행을 감행하였다.

이리하여 공화국 남반부는 미제의 군사 기지로 전변되였고 헤로와 학살, 기아와 무권리의 생지옥으로 전변되여 갔다.

이리하여 우리 혁명 투쟁은 계속 간고하고 장기적 성격을 띠게 되였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조국의 통일을 평화적 방법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가장한 투쟁을 전개하는 동시에 조국 통일의 강력한 성새인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혁명적 민주 기지를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공고 발전시키며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을 강화할 것을 중심 과업으로

내세웠다》(김 일성 《조선 로동당 제 3차 대회에서 진술한 중앙 위원회 사업 총결 보고》 조선 로동당 출판사 1956년 21페지). 그것은 북반부의 민주 기지를 일층 강화하여 공화국의 정치 경제적 토대를 공고 발전시키며 일체 애국적 민주 력량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함으로써만이 미제 침략 정책을 파탄시키며 공화국의 기치하에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반제 반봉건적 민주 혁명 과업의 전조선적 수행을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당은 우선 북반부 민주 기지를 일층 강화할 목적으로 1947년 및 1948년도 인민 경제 계획 실행 성과에 기초하여 1949~1950년 2개년 인민 경제 계획을 작성하고 그 수행에 전체 근로자들을 조직 동원하였다.

2개년 인민 경제 계획은 인민 경제 중요 부문들에서 해방전 생산 수준을 달성하며 공화국의 경제적 기초를 공고히 함으로써 인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의 향상과 교육, 문화, 보건 등의 새로운 발전을 예견하였던 것이다.

인민 경제 계획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난관과 애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반부 근로자들은 당의 지도하에 고도로 앙양된 애국적 열성과 혁명적 헌신성을 발휘하였다. 그 결과 벌써 2개년 계획의 첫해인 1949년도의 공업 총생산량은 1946년도에 비하여 337%로 장성하였으며 1950년 상반기 즉 전쟁 발발 전야에는 해방전 1944년 수준을 초과하였다. 공업과 함께 농촌 경리 분야에서도 거대한 성과를 달성하였는바 1949년도의 알곡 생산량은 1946년도 수준을 141%로, 1944년도 수준을 109.1%로 초과하였다.

인민 경제의 성과적인 복구 발전과 함께 사회주의 경제 형태가 또한 확대 강화되였다. 전쟁전에 이미 공업에서 사회주의 경제 형태가 차지한 비중은 90% 이상에 달하였다.

경제 건설에서 달성한 이러한 성과에 기초하여 인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 수준은 급격히 향상되였으며 민족 문화는 개화 발전되였다.

이와 같이 2개년 계획이 성과적으로 수행되는 행정에서 북

반부 민주 기지는 일층 강화되였으며 공화국 북반부는 조국 통일 독립의 더욱 강력한 원천지로 불패의 성새로 전변되여 갔다.

그러나 이 시기 미제의 강점하에 있던 공화국 남반부의 형편은 전연 다르게 되였다.

미 제국주의 식민지 예속화 정책과 리 승만 도당들의 살인적 략탈과 야수적 만행에 의하여 남반부의 민족 경제는 최후적 파탄에 이르게 되였으며 인민들의 경제 생활은 기아 상태에 처하게 되였다. 1949년 9월 현재로 남조선의 실업 및 파산자의 수는 300만 이상에 달하였다.

미제와 리 승만 도배들은 남조선 경제를 여지 없이 략탈 파괴함과 함께 야수적 파쑈 통치 제도를 강화하였다. 놈들은 날로 장성하는 인민 대중의 애국적 력량을 말살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횡포한 탄압과 학살을 감행하였다. 1949년 상반년 간에만 하여도 놈들의 손에 의하여 4만 6,000여명의 애국적 인민들이 무참히 학살되였다.

놈들은 좌익 진영 뿐만 아니라 자기의 반동 체제에 조금이라도 불만을 가지는 우익 진영까지도 탄압 학살하였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미제의 식민지 예속화 정책과 리 승만 도배들의 파쑈적 폭압을 반대하며 조국의 통일 독립을 위한 남반부 인민들의 구국 투쟁은 더욱 앙양되였다. 특히 북반부에서의 민주 건설의 성과들과 북반부 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 성원은 그들의 투쟁을 무한히 고무 격려하였다.

이 시기 남반부의 애국적 인민들은 동맹 파업, 시위 등의 투쟁 형태 뿐만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무장 투쟁으로써 원쑤들을 항거하여 나섰다.

견실한 우리 당원들을 선두로 한 애국적 인민들은 지리산, 오대산, 태백산 등에 유격 근거지를 설정하고 유격 투쟁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그들은 경찰 지서의 습격, 반동 분자의 처단 등의 완강한 투쟁을 통하여 원쑤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남반부 애국적 인민들의 이러한 혁명 기세의 앙양과 북반

부 민주 건설 사업의 찬란한 성과 그리고 날로 심각해져 가는 남조선 반동 통치의 부패한 현실은 이 시기 리 승만 도당의《국방군》내부에까지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였으며 이로 인하여《국방군》병사들 내부에서도 동요와 반항의 기세가 증대되였다. 즉 1948년 11월 려수에서《국방군》14련대가 폭동을 일으켜 인민 유격대로 넘어 갔으며 1949년 5월에는 춘천에 주둔하였던 춘천 대대와 홍천 대대가 의거 입북하여 인민 군대에 편입되였으며 이때를 전후하여 놈들의 해군 함정들도 의거하여 북반부 지역으로 넘어 왔다.

이 시기 남반부 애국적 인민들의 혁명적 진출과《국방군》내부에서의 반미, 반 리 승만 기세의 장성은 후에 알려진 바와 같이 당시 우리 당내에 잠입한 미제의 고용 간첩 박 헌영—리 승엽 도당의 범죄적인 파괴 행위로 인하여 적지 않게 저해되였으나 이는 내란 도발 준비에 광분하고 있은 미제와 리 승만 역도들에게 커다란 위협으로 되였다.

이러한 정세하에서 원쑤들은 발 밑으로부터 무너져 가는 자기의 통치 지반을 구원하며 장성하는 대중의 혁명 력량을 거세하기 위하여 공개적인 탄압과 학살을 감행하는 한편 우리 당내에 잠입하였던 박 헌영—리 승엽 도당들을 시켜 남반부 우리 당과 혁명 력량을 내부로부터 파괴하려고 급급하였다.

미제의 고용 간첩인 박 헌영—리 승엽 도당들은 자기 상전의 지시에 충실하면서 당 중앙 위원회의 지시를 고의적으로 무시하고 남반부에서 혁명에 유해로운 시기에 파업, 시위, 폭동 등을 조직하는 등 방법으로 당 조직을 적 앞에 로출시킴으로써 수 많은 혁명적 당원들과 애국자들을 적에게 검거, 투옥, 학살 당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박 헌영—리 승엽 도당들은 이 시기 남반부에서 우리 당을 전면적으로 파괴하며 수다한 우리 당원들과 애국자들을 적의 학살에 내맡김으로써 우리의 혁명 력량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

이리하여 남반부에서의 정치 정세는 일층 험악하여졌으며

남반부의 우리 당은 전면적 파괴에 직면하고 애국적 민주 력량은 분렬 약화될 위험성이 조성되였다.

우리 나라 남반부에 조성된 이러한 험악한 정치 정세와 당내 실정을 고려하면서 우리 당 중앙 위원회는 공화국의 기치하에 평화적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로농 동맹에 기초한 전체 민주주의적 애국적 력량의 통일과 단결을 일층 강화하여야 한다고 인정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우리 당의 동원 조직자적 역할을 제고하기 위하여 당 대렬의 사상 조직적 통일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그런데 당시 박 헌영—리 승엽 도당들의 해독 행위로 말미암아 남반부에서 당 단체들이 전면적으로 파괴되고 그의 합법적인 활동이 완전히 말살된 조건하에서 당을 그 이상 더 형식상 남북 두 지역에 분리하여 존속시킨다는 것은 남반부에서의 우리 당 단체들을 더욱 파국의 길에로 나아가게 하며 당 대렬의 조직 사상적 강화에 장애를 조성하는 것으로 되지 않을 수 없었다.

때문에 우리 당 중앙 위원회는 남반부에서의 당 사업을 강화하며 남북 로동당에 대한 통일적 지도를 더욱 튼튼히 보장하며 당 대렬의 사상 조직적 통일을 강화하고 그의 지도적 역할을 제고할 필요로부터 남북 로동당을 형식상에 있어서까지도 완전히 통일하는 대책을 취하였다.

1949년 6월 남북 조선 로동당 련합 중앙 위원회 전원 회의가 소집되여 이때까지 형식상 림시적으로 분리되여 있은 남북 조선 로동당은 공식적으로 합당하여 조선 로동당으로 되였다.

남북 조선 로동당이 통일된 조선 로동당으로 합당된 이 사실은 우리 당의 전투력을 더욱 강화하였으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 독립과 민주 발전을 위한 조선 인민의 투쟁을 더욱 힘 있게 추진시킬 수 있게 하였다.

남북 로동당의 합당 사업을 추진시킴과 동시에 당은 전 조선 민주주의적 애국적 력량들과의 통일 전선을 강화하는 사업을 병행하여 추진시켰다.

당시 미제와 리 승만 역도들의 가중하여 가는 야수적인 탄

압 학살 정책과 민주주의적 애국적 력량에 대한 분렬 책동에 의하여 혁명 대렬 속에서 주저와 위구, 동요와 분렬 및 와해의 위험성이 증대되여 가는 조건하에서 당 대렬의 통일 단결의 강화와 함께 통일 전선을 확대 강화하는 문제는 당 앞에 매우 긴급한 과업으로 제기되였던 것이다.

이리하여 우리 당의 지도 밑에 1949년 6월에 남북 조선의 72개의 민주주의적 애국적 정당, 사회 단체들을 망라한 광범한 통일 전선 즉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이 결성되였다. 여기에는 종전의 남북 조선 민전 산하에 망라되여 있던 민주주의 정당, 사회 단체 뿐만 아니라 남조선의 중간 및 우익 계층의 애국적 정당, 사회 단체들까지도 광범히 망라되였다. 이는 우리 당의 통일 전선 정책의 빛나는 승리이다.

당은 또한 이와 같이 국내의 애국적 민주 력량을 더욱 결속시킴과 함께 이에 확고히 의거하면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국 통일 방책을 제시하였다.

변동된 정세하에서 더욱 구체화한 우리 당의 조국 통일 방책은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 결성 대회에서 채택한 《평화적 조국 통일에 관한 선언서》에서 천명되였다.

이 선언서에는 미군과 《유엔 조선 위원단》을 우리 조국 남반부에서 철거시킨 후 남북 조선을 통하여 일체 정치적 자유가 보장되는 조건하에서 조선 인민 자체의 손으로 총선거를 실시하고 통일된 립법 기관을 수립하여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할 데 대한 구체적인 방책이 제시되였다. 통일적 립법 기관의 선거는 1949년 9월에 실시할 것이 제기되였다.

선언서에서 천명된 우리 당의 평화적 조국 통일 방책은 조성된 엄중한 정세하에서 동족 상잔의 내란을 방지하며 평화적 방법으로 조국을 통일시키기 위한 가장 적절한 조국 통일 제책이다. 그리고 이미 8.25 총선거를 통하여 수립된 공화국 최고 립법 기관과 중앙 정부가 현존하는 조건하에서 또 다시 남북 총선거를 제의한 사실은 어디까지나 동족 상잔과 내란 도발 위험을 제거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하루 속히 달성하려는

우리 당의 시종일관한 평화 애호 정책으로부터 출발된 것이다.

우리 조국에 조성된 복잡한 정치 정세하에서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의 결성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대한 가장 정당한 방책을 명시한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 선언서의 발표는 우리나라 민주 력량의 장성과 평화적 조국 통일 달성을 위한 투쟁 발전에 있어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였다. 이를 계기로 하여 남북 조선의 일체 애국적 민주주의적 력량의 통일 단결은 더욱 촉진되였으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전 인민적 투쟁은 고도로 앙양되였다. 그와 동시에 이는 조선의 영구한 분렬과 동족 상잔의 내란 도발 준비에 광분하고 있은 미제와 리 승만 도당들에 대한 치명적 타격으로 되였으며 그들의 침략, 매국적 본질을 날날이 폭로하여 그들을 조선 인민들로부터 더욱 고립시키는 계기로 되였다.

남북 조선의 전체 애국적 인민들은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의 결성과 그의 력사적 선언에 일층 고무되면서 평화적 조국 통일 실현을 위한 투쟁에 더 힘차게 궐기하였다.

북반부 인민들은 무엇보다도 조국의 통일 독립의 튼튼한 토대로 되는 북반부 민주 기지 강화를 위한 2개년 인민 경제 계획을 초과 완수하는 증산 투쟁의 불'길을 더욱 높였으며 남반부의 혁명적 로동 계급을 선두로 한 애국적 인민들도 반동들의 탄압을 박차고 파업, 시위, 군중 대회와 유격 투쟁·등을 계국적으로 전개함으로써 미제와 리 승만 도당들의 반동 정책을 반대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끝까지 실현시키려는 자기들의 불굴의 투지를 시위하였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인민들의 이러한 투쟁 행정에서 각계 각층 인민들의 정치적 동맹과 단결은 일층 튼튼하여졌으며 평화 통일의 력량은 더욱 더 장성 강화되여 갔다. 평화 통일 력량의 이러한 장성 강화는 남조선 우익 진영 내부를 일층 와해시키고 리 승만 괴뢰 《국회》마저 크게 동요시켰다. 괴뢰 《국회》 의원들 간에는 《정부 불신임》을 둘러 싸고 분렬과 정권 쟁탈전이 버러지게 되였다.

이러한 정세하에서 평화적 조국 통일은 죽음과 같이 두려워한 미제와 리 승만 역도들은 평화 통일에 관한 제안을 완전히 거부하면서 그를 지지하는 남반부 애국적 인민들의 투쟁을 잔인하게 탄압하며 그 실현을 백방으로 방해하여 나섰다. 이와 함께 놈들은 평화 통일 대신 공공연히 《북벌 계획》을 선포하고 동족 상잔의 내란 도발 준비에 일층 발광하였으며 국내에서 긴장 상태를 조성시킬 목적으로 38선 일대에서 더욱 빈번하게 무장 충돌 사건을 야기시켰다.

다른 한편 놈들은 이 시기 자기 진영 내부에서의 혼란 상태를 완화하며 파쑈 통치와 내란 도발에 더욱 잘 순응하는 새로운 《국회》를 조작하기 위하여 《유엔 위원단》의 감시하에 다시금 1950년 5월 30일에 새 《국회》 선거를 실시하였다.

《5.30 국회》의 조작은 놈들이 전쟁 도발을 위하여 취해진 마지막 조치였으며 그 이후 그들은 결정적 침략 전쟁 도발의 길에 들어 섰다. 이리하여 조국의 분렬과 침략 전쟁 폭발의 위기는 목전에 박두하였다.

이러한 엄중한 정세하에서 우리 당은 한편으로는 놈들의 침략 전쟁 도발에 대처하기 위한 제반 대책들을 강구하면서 다른 편으로는 침략 전쟁 도발을 방지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시킬 목적으로 평화적 조국 통일 방책을 다시 한번 추진시키기 위한 대책을 취하였다.

1950년 6월 7일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 중앙 확대 위원회는 조성된 정세를 심의하고 《평화적 조국 통일 방책 추진에 관한 호소문》을 발표하였다.

이 호소문에서 조국 전선 산하의 제 정당, 사회 단체들은 평화적 조국 통일에 관한 조국 전선의 선언서가 발표된 이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국 통일이 실현되지 못한 책임이 전적으로 미 제국주의자들과 리 승만 도당들에게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8.15 해방 5주년을 통일된 민주주의 독립 국가에서 기념할 것을 호소하였다. 호소문에는 또한 1950년 8월 5~8일에 남북 조선을 통한 총선거를 실시하고 8.15 해방 5주

년 기념일에 서울에서 최고 립법 기관 회의를 소집할 것을 주장하면서 총선거 실시를 토의하기 위하여 6월 15~17일에 남북 조선 제 정당, 사회 단체 대표자 협의회를 소집하자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리 승만 괴뢰 정부는 이 호소에 응하지 않았음은 물론 조국 전선의 제의를 지지하는 자를 반역자로 인정하겠다고 위협하면서 인민 학살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우리 당은 조선 인민의 일치한 념원인 평화적 조국 통일을 끝까지 실현시키기 위하여 계속 최선의 노력과 방법을 다하였다.

1950년 6월 19일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는 조국 전선 중앙 위원회가 제기한 요청과 전체 조선 인민의 지망에 근거하여 평화적 조국 통일 추진에 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이 결정에서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는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와 남조선 《국회》를 단일한 립법 기관으로 련합하는 방법으로써 평화적 조국 통일을 실현할 것을 제의하였다. 여기에서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는 련합의 방법으로 성립된 전 조선 립법 기관은 공화국 헌법을 채택하고 정부를 구성하며 이 헌법에 기초하여 앞으로 전 조선 립법 기관의 총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의 이 결정은 바로 평화적 조국 통일에 대한 우리 당과 인민 정권의 시종일관한 노력과 불굴의 의지를 다시 한번 표시한 것이였다. 만일 이때 남조선 《국회》가 이 제안에 동의하고 그를 실천하기 위하여 성의를 표시하였드라면 우리 조국은 벌써 통일되였을 것이다.

그러나 조국과 인민의 리익보다 자기들의 사리 사복과 자기 상전의 리익을 더 존중히 여기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보다 조국의 분렬과 동족 상잔의 내란을 원하는 리 승만 매국 역도들은 이 제의마저 거부하고 드디여 범죄적 침략 전쟁을 도발하고야 말았다.

놈들의 무력 침공과 관련하여 조선 인민의 평화적 건설 사

업과 평화적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은 중단되게 되였으며 조국과 인민은 전쟁의 참화 속에 들어 가게 되였다.

그리하여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조선 인민의 최대의 념원은 끝끝내 실현되지 못하게 되였다.

그러나 전쟁전 전 기간을 통하여 우리 당이 시종일관 견지하여 온 평화적 조국 통일 방책은 광범한 인민 대중 속에 통일되고 부강한 민주 독립 국가 건설의 정당성과 그 사업 승리에 대한 자신심을 높여 주었으며 원쑤들의 온갖 도발적 책동을 물리치고 조국의 통일 독립을 실현시킬 수 있는 강대한 력량을 준비하여 놓았다. 바로 이 력량에 의하여 조선 인민은 미제를 괴수로 한 16개국의 무력 침략자들을 물리치는 가렬한 조국 해방 전쟁에서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할 수 있었던 것이다.

3. 미제와 리 승만 도당들의 무력 침공을 반대하며 조선에서의 평화의 회복과 전쟁의 급속한 종식을 위한 로동당의 투쟁

1950년 6월 25일 미제와 리 승만 역도들은 평화적 조국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조선 인민의 성심 성의의 노력을 파탄시키고 공화국 북반부에 대한 불의의 무력 침공을 개시하였다.

이날 새벽 미제의 사촉하에 리 승만 괴뢰 군대는 38선 전역에 걸쳐 진공을 개시하여 공화국 북반부 지역에 1키로메터 내지 2키로메터 침공하여 왔다.

이에 대처하여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동족 상잔의 참사를 미연에 방지할 목적으로 리 승만 도배들에게 그들의 침략 행위를 강경히 규탄하는 한편 군사 행동을 즉시 정지할 것을 요구하면서 만일 군사적 모험을 즉시 중지하지 않는다면 결정적 대책을 취하겠다는 것을 경고하였다. 그러나 리 승만 역도들은 자기의 침략 계획대로 공화국과 우리 인민을 반대하는 략탈적 무력 침공을 계속 확대하였다.

놈들은 전쟁을 통하여 공화국 북반부를 강점하고 북반부에 수립된 인민 민주주의 제도를 청산하며 전 조선을 미제의 식민지로 만들려 하였다.

이리하여 우리 조국에는 엄중한 위험이 조성되였으며 우리 당과 정부는 이에 대처하는 결정적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당과 정부는 조국에 조성된 엄중한 위험을 타개하기 위하여 침공해 오는 적에게 결정적 반공격을 가할 긴급한 대책을

취하는 동시에 이를 통하여 원쑤들을 적극적으로 소탕하고 반동적 통치하에서 신음하고 있는 남반부 인민들을 해방시킴으로써 공화국의 기치하에 조국의 통일 독립을 쟁취할 과업을 제시하였다.

이때로부터 조국의 자유와 독립과 영예를 수호하기 위한 조선 인민의 정의의 조국 해방 전쟁은 개시되였으며 북반부에서의 평화적 건설 사업과 조선 인민의 평화적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은 중단되게 되였다.

전쟁 개시와 함께 우리 당은 일체 사업을 전시 체제로 개편하면서 전체 조선 인민을 원쑤 격멸을 위한 투쟁에로 불러일으켰다.

당의 기동성 있는 제 대책과 조선 인민과 인민 군대의 영웅적 투쟁에 의하여 적들의 침략 계획은 전쟁 첫날부터 파탄되였으며 놈들은 만회할 수 없는 심대한 패배를 당하였다.

영웅적 우리 인민 군대는 적의 불의의 침공을 좌절시키고 반공격으로 넘어 가서 불과 1개월 반 동안에 남반부의 거의 전 지역을 해방시켰다.

이와 같이 전쟁의 첫 행정은 벌써 정의의 전쟁에 궐기한 조선 인민의 힘이 얼마나 강대하며 무진장한가를 확증하였으며 그 반면에 침략자들의 패망은 불가피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우리 당은 원쑤 격멸을 위한 조선 인민의 영웅적 투쟁을 강력히 조직 전개함과 함께 처음부터 전쟁의 조속한 종식과 조선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

왜냐 하면 전쟁은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 수 없는 재난과 불행을 가져다 주며 나아가서는 극동과 세계의 평화에 위협으로 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우리 당은 미제의 사촉하에 리 승만 도당들이 북반부에 대한 불의의 무력 침공을 개시하자 그들에게 즉시 도발적 행위를 정지할 것을 엄격히 경고하였으며 뒤이어 미제 침략자들의 공개적 무력 간섭이 감행되였을 때에는 미제 무력 간섭의 즉

시 중지와 조선으로부터의 미군 철거를 강경히 요구하여 나섰다.

즉 1950년 7월 1일 및 8월 5일과 그 후 계속 여러 차례에 걸쳐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공화국 외무성 성명을 통하여 미제 무력 간섭을 단호히 항의하면서 그를 즉시 중지시킬 대책을 취할 것을 유엔 안전 보장 리사회에 요구하였다. 한편 이때 우리 당은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을 통하여 미제 무력 간섭을 즉시 저지시키며 미군을 철거시킬 데 대한 긴급한 조치를 취할 것을 유엔 안전 보장 리사회에 요구하는 《조선 인민의 성명서》에 대한 전 인민적 서명 운동을 전개하였다. 여기에는 16세 이상의 조선 인민 1,300만 여명이 서명하였다.

그러나 미 제국주의자들과 리 승만 도당은 우리의 정당한 제의에 응하지 않고 발광적으로 전쟁을 계속하였다. 이에 있어서 우리 당은 적들에게 결정적인 군사적 타격을 가함과 동시에 적들의 침략적 정체, 비인간적 야수적 만행들을 온 세계에 낱낱이 폭로하여 적들의 정치 도덕적 패배와 고립화를 촉진함으로써 조선에서 손을 떼지 않을 수 없게 하는 방침을 취하였다.

이에 있어서 우리 당은 미제의 전쟁 도발에 의한 조선에서의 평화의 파괴는 동시에 극동, 더 나아가서는 세계 평화의 파괴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조선에서의 조속한 전쟁 종식 문제는 전 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의 절대한 관심사로 되며 그들의 전쟁 도발의 원흉 미제에 대한 증오가 더욱 더 증대될 것이라는 것을 타산하였던 것이다.

김 일성 동지는 우리 당의 이 방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우리는 인류 력사상 류례가 드문 놈들의 온갖 야수적 식인종적 만행들을 세계 인류 앞에 더욱 국제적으로 폭로하여 우리의 친우들에게는 미제에 대한 증오심을 더욱 강화시키고 적의 진영에 속한 자에게도 미제에 대한 의아심을 조장함으로써 이 야수들을 더욱 철저하게 고립시켜야 한다》(김 일성 선집 제 3권 1954년 판 164페지).

이러한 방침에 근거하여 우리 당은 정부의 성명, 조국

전선 조사 보고, 세계 평화 옹호 대회에의 적극적인 참가 등 온갖 방법과 기회를 리용하여 우리 인민의 투쟁의 정당성을 널리 선전하였으며 미제의 침략적 정체를 철저히 폭로하였다.

우리 당의 이와 같은 투쟁은 국제적으로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그리하여 전 세계 평화 옹호 력량은 조선 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적극 지지 성원하였으며 미제를 전쟁 도발의 원흉으로서 더욱 더 증오하며 규탄하게 되였다. 뿐만 아니라 조선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투쟁은 전 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의 투쟁 강령의 중요한 부분으로 되였다.

특히 위대한 쏘련 정부는 조선 전쟁이 발발되던 첫 시기에 벌써 우리 정부의 방침과 요구를 지지하면서 국제 무대를 통하여 조선에서 침략 전쟁을 도발한 미국 지배층의 기도를 남김없이 폭로하는 동시에 미제 무력 간섭의 즉시 중지와 조선 문제의 평화적 조정을 강경히 요구하여 나섰다. 그리고 조선에 대한 미국의 침략을 반대하여 모든 인민 민주주의 국가 인민들과 각국의 진보적 력량이 한결같이 항의하여 나섰으며 6억의 평화 옹호 투사들의 의사를 대표한 제 2차 세계 평화 옹호 대회는 조선 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여 나섰다.

이와 같이 조선 전쟁이 발발된 첫 시기부터 쏘련을 선두로 하는 사회주의 진영 제 국가 인민들과 전 세계 진보적 력량들은 미제의 조선에 대한 무력 간섭을 반대하여 나섰으며 《미제는 조선에서 손을 떼라!》는 구호하에 광범한 군중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미제 무력 간섭에 대한 전 세계 선량한 인민들의 이러한 항의와 조선 인민의 정당한 투쟁에 대한 그들의 강력한 성원은 미제를 국제적으로 일층 고립시켜 놓았으며 그 반면에 원수를 물리치는 투쟁에서 조선 인민을 더욱 영웅적 위훈에로 고무 추동하였다.

전체 조선 인민들은 우리 당의 정확한 령도와 전 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의 이러한 성원에 고무되여 전선과 후방에서 모

든 간난과 신고를 극복하면서 우리 나라 력사에서 일찌기 볼 수 없었던 영웅주의와 애국주의를 발휘하였다. 당의 부름에 따라 전선과 후방에서 떨친 인민군 장병들과 인민 대중의 무비의 용감성과 애국주의는 조선 인민의 불패의 상징으로 되였다.

우리의 영웅적 인민군 부대들과 조선 인민은 일시적 후퇴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이 간고한 시련을 용감히 이겨 내였으며 《항미 원조》의 성스러운 기치를 높이 들고 조선 전선에 참전한 중국 인민 지원군 부대들과의 협동 작전하에 적들에게 대규모적인 섬멸적 타격을 주면서 놈들을 38선 이남으로 다시 구축하여 나아갔다.

이와 같이 조선 전선에서의 계속되는 심대한 패배와 미제 무력 간섭을 반대하는 전 세계 인민들의 강력한 항의, 그리고 제국주의 진영 내부 모순의 격화로 말미암아 막다른 골목에 빠진 미 제국주의자들은 이 시기 조선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유엔 쏘련 대표 야. 야. 말리크의 주장을 계기로 정전 담판의 길을 찾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놈들은 1951년 6월 30일 우리에게 정전 담판을 제의하여 왔다.

물론 놈들의 근본 의도는 군사, 정치, 도덕적으로 패배를 거듭하고 있는 궁지에서 빠져 나오자는 것이였다. 즉 만회할 수 없는 참패와 격화되는 내부 모순으로 인하여 막다른 골목에 빠진 미 제국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위기를 모면하고 패배를 만회할 시간을 얻자는 것이였다.

우리 당은 평화에 대한 인민의 의사에 따라 적들의 의도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막론하고 류혈적 전쟁을 하루 속히 종식시킬 목적하에 이 제의에 동의하였다.

우리 측이 정전 회담에 응하게 된 사정에 대하여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우리는 정전 회담을 요구하는가? 물론 우리 조선 인민들은 요구합니다. 우리 조선 인민들은 언제든지 평화를 요구하며 또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쟁을 중지하고 파괴된 산업을 복구 건설하며 민족 경제를 부흥 발전시켜 다시 행복한 생활을

창조하기 위하여서는 평화가 필요한 것이며 또한 요구되는 것입니다.……그러므로 평화를 요구하는 조선 인민들의 지망은 진리이며 조선 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전 세계 인민의 요청이므로 개성 회담의 정당한 해결을 얻기 위하여 우리 대표가 참석한 것입니다》(김 일성 선집 제 3권, 1954년 판 270페지).

군사적으로 적을 압도하고 전쟁에서 승리를 쟁취하고 있는 조건하에서 적측의 정전 회담 제의를 수락하며 나아가서는 이 회담의 성과적 진척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우리 당과 정부의 숭고한 행동은 어디까지나 우리 나라에서 류혈적 참극을 하루 속히 제거하며 조선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념원에서 출발한 것이였다.

정전 담판에서 우리 측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초 우에서 전쟁의 조속한 종식과 조선 문제의 완전한 평화적 해결을 예견하는 그러한 협정의 체결을 위하여 시종일관 성의 있는 노력을 다하였다.

그러나 적측은 공정한 담판 대신에 이 담판을 여지 없이 추락된 자기들의 위신을 만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또한 전쟁에서 달성하지 못한 침략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기회로 리용하려 하였다. 이리하여 놈들은 정전 담판에서 상투적인 지연, 강요 파탄 등 온갖 방법과 책동을 다하여 회담을 한정 없이 끌게 하였다.

정전 담판에서 적측의 침략적 야망과 황당무계한 주장은 모든 문제 토의에서 표현되였는데 특히 군사 분계선 설정과 포로 문제 토의에서 더욱 로골적으로 나타났다.

군사 분계선 설정에 대한 문제를 토의함에 있어서 미제는 《항공 우세에 대한 대'가》, 《방위상 필요》 등의 부당한 구실로 분계선을 38선 이북에 깊이 설정함으로써 북반부 지역으로부터 1만 3,000평방키로메터 이상 즉 우리 나라 전체 면적의 20분지 1에 해당하는 면적을 떼여 내려고 획책하였다. 이것은 놈들이 전선에서 달성하지 못한 령토적 야망을 회의장에서 달성하려는 파렴치한 행동이였다.

그리고 포로 처리에 관한 문제를 토의함에 있어서도 적측은

바로 이 문제에 대한 국제적 협정이 엄격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란폭하게 유린하면서 소위 《1 대 1 교환》, 《자원 송환》 등을 주장하여 우리 측 포로의 강제 억류를 획책하였다.

미제는 이와 같이 황당무계한 주장을 함으로써 담판을 지연시키며 그를 파탄에로 몰아 넣으려 하였다. 뿐만 아니라 미제는 담판을 종국적으로 파탄시킬 목적으로 담판의 막 뒤에서는 침략 전쟁 확대를 계속 획책하면서 대병력을 동원하여 무모한 공세를 시도하였다.

놈들의 이러한 책동으로 말미암아 정전 담판의 전 행정은 복잡성과 장기성을 띠였다.

그러나 우리 측의 인내성 있고 성의 있는 노력과 정당한 주장 그리고 전선에서 조선 인민군과 중국 인민 지원군 부대들의 계속적인 전투 승리는 적들로 하여금 자신이 수차에 걸쳐 중단시킨 정전 담판을 계속할 것을 제기하여 나오지 않을 수 없게 하였으며 회담에서 합의의 달성을 방해하기 위하여 그들이 들고 나왔던 각종 부당한 론거들을 그들 자신이 철회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이리하여 처음부터 정전 담판을 파탄시키고 조선 전쟁을 확대하려고 획책한 미제의 침략적 기도는 파탄되였으며 전선에서 더욱 증대되는 심대한 참패와 전 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의 요구와 압력에 못 이겨 1953년 7월 27일 놈들은 정전 협정에 조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3년 1개월에 걸친 조국 해방 전쟁은 우리 당의 령도하에 정의의 투쟁에 궐기한 조선 인민의 위대한 승리로 끝났다.

조국 해방 전쟁에서 조선 인민이 쟁취한 거대한 승리는 무엇보다도 미제를 괴수로 한 제국주의 침략자들을 격파하고 북반부의 민주 기지를 수호하여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의 영예를 고수한 데 있다. 그리하여 조선 인민은 과거와 같이 북반부 민주 기지에서 혁명 력량을 계속 강화할 수 있게 되였으며 따라서 이것을 토대로 하여 조국의 평화적 통일 독립을 달성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질 수 있게 되였다. 그리

고 전쟁에서의 조선 인민의 승리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민주 기지 창설 강화를 위하여 실시하여 온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정책의 정당성을 실증하였다. 즉 평화적 조국 통일의 기치하에 남북 조선의 광범한 애국적 인민들이 단합되였고 조국 통일 독립의 강력한 성새로 되는 북반부 민주 기지를 창설 강화하였기 때문에 우리 당과 인민은 이 역량에 의거하여 강대한 적과의 투쟁에서 력사적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던 것이다.

조선 전쟁의 결과는 또한 그 어떠한 제국주의 침략자들도 자기 손에 주권을 장악하고 사회주의 진영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우리 인민을 정복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조선 인민은 제국주의 침략자들을 반대한 조국 해방 전쟁에서 자기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미 제국주의자들의 대륙 침략 계획과 3차 세계 대전 도발 음모를 분쇄함으로써 극동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거대한 공헌을 하였다.

조선에서 정전의 실현은 우리 인민 앞에 다시 평화적 방법으로 조국을 통일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주었다. 그리하여 조선 인민은 우리 당의 령도하에 전쟁에서 승리한 그 기세로 전후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장엄한 투쟁의 길에 확신성 있게 들어 섰다.

4. 정전을 공고한 평화에로 전환시키며 조선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로동당의 투쟁

정전 협정이 체결됨으로써 조선에서 류혈적 전쟁은 종식되고 우리 나라는 전쟁 상태로부터 벗어 나 다시 평화적 건설 시기에 들어 서게 되였다.

그러나 정전 협정의 체결은 아직 완전한 평화를 가져 온 것이 아니며 조선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의미하지 않았다. 전쟁은 종식되였으나 우리 나라는 아직 통일되지 못하였으며 남반부는 계속 미 제국주의자들의 강점하에 놓이게 되였다.

미제 침략자들은 정전후에도 계속 조선에 대한 자기들의 침략적 야욕을 버리지 않으면서 남조선을 강점하고 그에 대한 정치, 군사, 경제적 지배권을 더욱 강화하여 나섰다. 놈들은 리 승만 도배들과 더불어 각종 새로운 침략적 《협정》과 《조약》들을 체결함으로써 미군의 남조선 장기 주둔을 합법화하려 하며 남조선의 일체 중요 경제 명맥과 모든 인민 생활을 자기들의 지배하에 완전히 종속시켜 놓았다.

이와 함께 미제는 처음부터 정전 협정을 유린하면서 또 다시 조선에서 긴장 상태를 격화시키며 전쟁을 도발하려고 획책하였다.

미제는 바로 정전 협정이 체결되던 날인 1953년 7월 27일에 소위 16개국 《선언서》를 조작하여 놈들이 다시 전쟁을 도발할 때 조선 무력 간섭에 참가한 16개국이 또 다시 전쟁에 참가할 의무를 지게 하였으며 1953년 8월 8일에는 리 승만 도배들과 소위 《한미 호상 방위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미군의 남조

선 장기 주둔과 조선 인민을 계속 무력으로 간섭하려는 시도를 로골적으로 표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미제는 전후 조선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방해할 목적으로 정전 협정에 예견된 정치 회의 소집을 고의적으로 파탄시켰으며 리 승만 역도들을 사촉하여 《북진》 소동에 날뛰게 하였다.

리 승만 도당들은 정전 첫날부터 《정전은 휴식이다》, 《싸움은 이제부터다》라고 떠벌리면서 전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광분하였다.

이와 같이 미제에 의한 계속적인 남조선 강점과 침략 정책으로 말미암아 정전후에 있어서도 우리 조국은 량단된 채 통일되지 못하였으며 남반부는 더욱 더 미제의 식민지 군사 기지로 전락되고 전쟁의 위협은 의연히 사라지지 않았다.

이러한 정세하에서 전후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무엇보다도 정전을 공고한 평화에로 전환시키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여 남반부 인민을 미제와 리 승만 통치로부터 해방시켜야 할 중대한 임무가 계속 제기되였다.

그리하여 정전 직후에 소집된 우리 당 중앙 위원회 제 6차 전원 회의는 전후 조성된 국내 정세하에서 우리 혁명의 당면 기본 임무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며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 과업을 제시하고 전 당과 인민을 이 과업 수행에로 불러 일으켰다.

전원 회의는 조선의 통일 문제는 응당 조선 사람 자체의 의사에 의하여 해결되여야 한다는 우리 당의 확고한 립장과 원칙을 강조하면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과 인민 앞에 제기되는 중요 과업은 무엇보다도 정전을 공고한 평화에로 전환시키며 북반부의 혁명적 민주 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일층 강화하며 남북 조선의 민주주의적 애국적 력량을 우리 당과 정부 주위에 튼튼히 집결시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투쟁에 총궐기시키는 데 있다고 지적하였다.

우리 당은 제 6차 전원 회의가 제시한 이 기본 로선에 립

각하여 전후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여 왔다.

당은 우선 조국의 통일 독립의 물질적 담보로 되는 북반부의 민주 기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후 인민 경제 복구 발전을 위한 투쟁에 자기의 전 력량을 동원하는 한편 정전의 성과를 공고히 하며 조선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하여 꾸준한 노력을 다하여 왔다.

정전 직후 우리 당과 정부는 정전 협정에 규정된 한급 높은 정치 회의 소집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다.

정전후 3개월 이내에 소집될 것이 예견된 이 정치 회의의 기본 과업은 우선 조선으로부터의 모든 외국 군대의 철거와 조선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협조하는 데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 당은 이 회의를 통하여 미군과 그 추종 국가 군대들을 남조선에서 완전히 철거시키고 조선 문제를 조선 사람 자체의 손으로 해결하며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 나라 내정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기본 목적을 두었다.

따라서 이 회의의 소집은 조선에 완전한 평화를 가져다 주며 조선 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촉진과 나아가서는 극동과 세계의 평화 유지에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것이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과 정부는 이 회의의 소집에 대하여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면서 정치 회의 소집을 위한 쌍방 예비 회담에서 회담의 진척을 위하여 성의 있는 노력을 다하였다.

그러나 조선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원치 않는 미 제국주의자들은 온갖 책동을 다하여 이 쌍방 회담을 고의적으로 파탄시켰으며 그리하여 조선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정치 회의는 소집되지 못하게 되였다.

미제의 이와 같은 책동은 오히려 미제 자체의 정체를 국제적으로 더욱 더 폭로한 데 불과하였다. 이미 조선 정전 담판의 성립에 의해서 조성된 회담에 의한 국제 분쟁 문제의 해결의 가능성은 이 시기에 와서 세계 평화 애호 국가들과 인민들의 투쟁에 의하여 더욱 증대되고 있었다. 이러한 추세는 언제나

그러한 바와 같이 특히 쏘련의 이니시아티브에 의하여 촉진되었다. 즉 쏘련의 이니시아티브에 의하여 조선 문제와 인도지나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제네바 회의가 소집되게 되였으며 이로써 다시 한번 국제 무대에서 조선 문제 해결을 위한 관계 국가들의 토의의 길이 열리게 되였다.

제네바 회의는 1954년 4월에 소집되였다.

회의에서 공화국 정부 대표단은 조선 문제는 반드시 전체 조선 인민과 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의 리익에 부합되게 조정되여야 하며 조선을 민주주의적 기초 우에서 평화적으로 통일시키는 사업은 조선 사람 자체에게 맡겨야 한다는 우리 당의 원칙을 일관하게 고수하면서 조선 문제의 평화적 조정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안들을 제기하였다.

쏘련 및 중화 인민 공화국 대표단의 지지와 찬동을 받은 우리 대표단이 제기한 방안에는 조선 인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시에 기초하여 조선에 통일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국회 총선거를 실시할 것과 총선거를 준비하며 남북 조선간의 경제 및 문화적 접근에 관한 긴급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남북 조선 대표들로써 전 조선 위원회를 조직할 것과 기타 선거의 자유 분위기와 진정한 민주주의적 성격을 보장하기 위한 제 대책이 제시되였다. 또한 이 방안에는 선거를 외국의 간섭이 없는 자유 분위기 속에서 보장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조선 지역으로부터 일체 외국 군대를 철거시킬 것과 또한 극동의 평화 유지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진 나라들이 조선의 평화적 발전을 보장할 데 대한 대책들이 예견되여 있었다.

바로 이 방안은 조선 인민의 근본적 리익과 전반적 평화의 공고화를 위한 과업에 완전히 부합되는 것이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안은 조선 인민의 열렬한 지지는 물론이요 세계 민주 진영 인민들과 특히 아세아 제 국가 인민들의 지지를 받았다.

회의에서 미국 대표를 비롯한 그 추종 국가 대표들은 조선의 민족적 통일의 회복과 조선 문제의 평화적 조정을 위한 정

당하고도 명백한 우리의 방안에 대치할 어떠한 자기 방안도 내놓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제네바 회의에서의 조선 문제의 토의는 처음부터 사실상 우리 방안을 토대로 하여 진행되게 되였다.

그러나 처음부터 회의를 파탄시킬 것을 목적한 미제와 그 추종 국가 대표들은 회의에서 우리 대표단과 쏘련 및 중화 인민 공화국 대표단에 의하여 제출된 일련의 정당한 제안들을 부당하게 거부하면서 남조선에 수립된 반인민적 통치 제도를 유엔의 간판하에 북조선 지역에까지 확대하려는 황당무계한 주장을 고집하였다.

그들은 회의에서 자기들의 부당한 목적이 달성될 수 없게 되자 미리 작성하여 가지고 온 소위 16개국 공동 선언서를 랑독하고 회의를 일방적으로 파탄시키고 말았다.

이와 같이 하여 조선 인민과 세계 인민의 큰 관심사로 된 제네바 회의는 미제와 그의 추종자들의 파괴 행위로 말미암아 조선 문제 해결에서 아무런 결정도 채택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제네바 회의에서 조선 문제 토의의 전 과정을 통하여 오직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과 쏘련 및 중화 인민 공화국만이 진정으로 조선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성의 있는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전 세계 인민들 앞에 다시 한번 명백히 보여 주었으며 이와 반대로 미제와 그 추종 국가들은 조선에서의 평화를 원하지 않으며 조선에 대한 미국의 식민지 예속화 정책을 계속 유지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더욱 뚜렷이 폭로하였다.

제네바 회의에서 조선 문제의 토의 행정은 또한 조선 문제와 관련된 어떠한 국제 회의든지 우리 공화국 대표의 참가 없이는 그 문제의 정당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주었으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조선 인민의 일치한 념원을 반영한 공화국의 대외 정책의 정당성을 시위하였다.

제네바 회의를 통하여 전체 조선 인민들과 전 세계 인민들로부터 더욱 더 항의와 규탄을 받게 된 미제와 리 승만 도당들은 그 후 조선에서의 긴장 상태의 격화와 전쟁 재도발 책동을

일층 로골적으로 감행하여 나섰다.

벌써 미제는 제네바 회의에서 조선 문제를 파탄시킨 다음 날 리 승만 괴뢰 대표로 하여금 《이 이상 조선 정전을 준수할 의무를 가지지 않는다》고 떠벌리게 하였으며 남조선 괴뢰 도당으로 하여금 《북진 통일》의 나발을 더욱 고창케 하였다.

미제는 정전 협정을 란폭하게 유린하고 남조선에 각종 전략 물자를 대대적으로 반입하며 리 승만 괴뢰 군대를 정전 당시의 16개 사단으로 부터 30여개 사단으로 확장하기에 광분하였다.

뿐만 아니라 놈들은 자기들의 군비 확장을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중립국 감독 위원회의 활동을 공공연히 저해하며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의 도발 행위를 빈번히 감행하였다.

이와 동시에 리 승만 역도들은 남반부 인민들의 반미, 반리 승만 기세가 더욱 앙양되고 심지어는 그들 지배층 내부에서까지 리 승만 독재의 폭압 정치를 반대 비난하는 기운이 날로 장성하여 가는 정세하에서 무너져 가는 자기들의 반동 통치를 구원하려고 파쑈 폭압 제도를 일층 강화하여 나섰다.

놈들은 이를 위하여 한편으로는 인민 대중에 대한 테로와 탄압을 일층 강화하면서 다른 편으로는 자기들의 통치 기구를 더욱 파쑈화하기에 광분하였다.

놈들은 1954년 5월 《국회 선거》에서 자기들의 반인민적 정책에 순종하는 《반대파 없는 국회》를 조작하려고 발광적인 책동을 다하였으며 더 나아가서는 《헌법》을 개악하여 남조선 《국회》내에서 리 승만의 전횡을 합법화하며 일체 반정부 세력을 탄압 배제하려고 날뛰였다.

이와 같이 날로 강화되는 미제와 리 승만 도배들의 식민지 폭압 통치와 그들의 도발적 책동들은 남조선 인민들을 참을 수 없는 정치적 무권리와 빈궁 속에 몰아 넣었으며 우리 나라의 정치 정세를 더욱 첨예화시켰다.

조성된 이러한 정세는 날로 증대되는 조선 인민의 민족적 불행을 하루 속히 제거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취할 것을 제기하였다.

우리 당은 조성된 정세하에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현실적 길은 무엇보다도 조선 사람끼리 합의에 도달하는 데 있다고 인정하고 각 방면에 걸쳐 남북 조선 인민간의 접촉과 실무적 련계를 도모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길에 들어 섰다.

왜냐 하면 남북간의 접촉을 실현하는 것은 호상 리해와 애국적 력량의 단합을 촉진시킴으로써 조선 문제의 평화적 조정과 조선의 민족적 통일의 회복을 위하여 보다 유리한 전제 조건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남북 협상에 대한 우리 당의 구체적인 방안은 1954년 10월 최고 인민 회의 제 8차 회의 호소문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였다.

이 호소문에서 우리 당은 조선 인민의 민족적 불행을 청산하고 남북 조선 인민간의 련계와 친선을 강화하며 조선 사람끼리 한자리에 모여서 조선의 통일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을 주장하였다.

호소문에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 문제를 토의하기 위하여 남북 조선의 각 정당, 사회 단체 및 각계 각층 대표자 련석 회의 혹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와 대한 민국 국회의 합동 회의를 평양 혹은 서울에서 1955년 내로 소집할 것과 이러한 회의 소집에 관한 문제와 남북 조선간의 경제 및 문화 교류, 통상, 통행, 서신 거래의 개시에 관한 문제를 토의하기 위하여 남북 조선 대표들의 회의를 1955년 2월 판문점 혹은 개성에서 소집할 것이 제의되였다. 또한 남북 조선 각 정당, 사회 단체들과 각계 각층 애국적 인사들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호상 련락하며 호상 래왕하며 호상 접촉할 것과 남북 조선의 정권 당국은 전 조선 지역에서 이들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할 것 등이 표명되였다.

남북 협상에 관한 이 제의는 남북간에 조성된 정치, 경제, 문화적 영역의 부자연하고 기형적인 상태와 조선 인민의 생활상 고통을 일소하기 위한 유일한 방도이다.

남북 조선간의 경제적 및 문화적 련계를 설정하고 발전시

키는 것은 더 지연시킬 수 없는 당면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촉진시키며, 남북 조선간에 조성된 긴장한 분위기를 더 한층 완화시키며 조선에서의 평화의 공고화에 전일보의 기여를 할 것이며 나아가서는 극동과 세계 평화의 유지 강화에 이바지할 것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최고 인민 회의 제 8차 회의 호소문은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 산하의 각 정당, 사회 단체들과 전체 조선 인민의 한결같은 지지와 환영을 받았으며 또한 해외에 있는 우리 동포들과 조선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념원하는 전 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의 지지와 찬동을 받았다.

미제와 리 승만 역도의 온갖 방해와 탄압에도 불구하고 최고 인민 회의 호소문은 조선 인민의 절실한 념원을 반영한 것만큼 남반부 인민들 속에 광범히 침투되였으며 그들은 한결같이 이를 지지하여 나섰다. 이 호소문은 심지어는 일부 남조선 《국회》 의원들과 괴뢰 군대에서까지 광범한 반향을 일으켰으며 지지를 받았다.

이와 같이 최고 인민 회의 호소문의 발표를 계기로 하여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남반부 인민의 기세가 날로 고조되여 감에 따라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은 극도로 당황망조하여 공갈, 위협, 테로에 혈안이 되였다. 리 승만은 조선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어떠한 협상에도 응하지 않으려 하였으며 괴뢰군을 동원하여 《만푹 북진》하겠다고 떠벌리면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요구하는 사람은 《직위 여하를 막론하고 국법에 처한다》고 공갈과 위협을 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미제와 리 승만 역도들은 이 해 11월에 《한미 군사 경제 원조 협정》을 체결하고 전쟁 준비에 더욱 날뛰였다.

놈들의 침략적 책동이 더욱 로골화되는 정세하에서 우리 당은 거듭하여 1955년 3월 제 9차 최고 인민 회의 선언에서 쏘련 최고 쏘베트 2월 9일 부 선언을 지지하면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선언은 미제와 리 승만 역도들의 전쟁 준비 정책을 규탄하면서 미국과 남조선간에 체

결된 각종 군사 조약들을 철폐하며 일체 외국 군대를 철거시키며 남북 조선 군대를 각각 10만 명 이하로 축소하며 조선 문제의 평화적 조정을 위한 국제 회의의 조속한 소집, 남북 조선간의 접촉과 기타 조치들을 취할 데 대한 우리 당의 주장을 표명하였다. 여기서 특히 10만 명 이하로의 군대 축소 문제는 적들이 군비를 확장하며 긴장 상태를 조성하는 구실을 없애는 것이며 리승만 도당의 전쟁 도발의 기도를 폭로하는 것으로 된다.

이와 함께 이 시기 우리 당은 극동에서의 긴장 상태의 완화와 조선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진시킬 목적하에 조선으로부터 대량적으로 철거하는 중국 인민 지원군의 평화적 조치를 적극 지지하였다.

우리 당의 평화적 통일 방책은 그 후 8. 15 해방 10주년에 제한 김 일성 동지의 보고에서 거듭 다음과 같이 천명되였다.

《조선으로부터 외국 군대들이 철거하고 외국의 간섭이 없이 남북 조선 인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조선 문제를 토의하며 남북 조선 인민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여 통일적 민주주의 중앙 정부를 수립하며 인민이 선거한 대표들로써 정부의 성격을 규정하여야 한다》(김 일성 《위대한 쏘베트 군대에 의한 8. 15 해방 10주년 기념 보고》 조선 로동당 출판사 1955년 34페지).

김 일성 동지는 동시에 우리가 평화적으로 통일을 달성하려 하는 것은 결코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조선 동포들이 지난 전쟁에서와 같이 막대한 희생과 고통을 또 다시 당하지 않기 위해서이며, 우리 민족은 단일 민족이기 때문에 부모, 형제, 처자들이 남북으로 갈라져 사는 고통을 조속히 제거하기 위해서이며, 북반부에서의 인민 경제의 제반 성과들을 남조선 인민들도 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지적함으로써 우리 당의 평화적 통일 방안을 제기하는 근거를 다시 한번 천명하였다.

평화적 통일을 촉진하는 방안으로서 조선에서 공고한 평화의 보장 및 남북 협상 등 대책들을 재차 천명하면서 김 일성 동지는 조국과 인민 앞에 과거 죄과를 범한 사람이라도 그것

을 뉘우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념원하는 사람이라면 과거를 묻지 않고 환영, 포섭하며 행동을 같이 하며 협상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것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이 민족 지상의 과업인 것만큼 민족적 량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나 접수하지 않을 수 없는 절실한 대책이다.

우리 당은 이상에서 제시된 정당한 조국 통일 방안에 근거하여 남북 조선간의 접촉을 촉진시키기 위한 일련의 대책들을 취하여 왔다.

즉 1954년 12월에 보낸 남북 조선간에 정상적인 체신 우편 련락을 개시할 대책을 강구할 데 대한 체신상의 서한, 공화국 령해에서 남조선 어민들의 고기잡이 작업 조건을 보장할 것을 예견한 1955년 5월의 내무상과 수산상의 성명, 전력 부족으로 인하여 난관에 봉착하고 있는 남조선에 북반부의 풍부한 전력을 공급하여 줄 것을 표명한 1955년 11월의 전기상의 성명 등은 모두 다 남북 조선간의 경제적 교류와 접촉을 위한 공화국의 성의 있는 노력을 표시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거듭되는 평화적 조국 통일 방안과 남북 조선간의 접근의 길을 열기 위한 제 조치들은 그때마다 미제와 리승만 도당들의 방해 책동으로 말미암아 실현되지 못하였다.

놈들의 파괴 행동으로 인하여 비록 우리의 제안들은 실현되지 못하였으나 우리 당의 진지한 노력과 꾸준한 투쟁의 결과 전체 남북 조선 인민들은 우리의 제안을 적극 지지하여 나섰으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력량은 공고화되고 확대되였다.

그 반면에 미제와 리 승만 도배들은 인민 대중으로부터 더 한층 고립되였으며 그들의 통치 지반은 더 심각한 위기에 빠지게 되였다.

우리 당이 이와 같이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관한 제안을 거듭 내놓는 근거에 대하여 당 중앙 위원회 1954년 11월 전원 회의에서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조국 통일은 현 계단에 있어서 우리 당의 기본 과업이다. 그러므로 우리 당이 통일에 대한 호소문을 발표하고 제의를 하는 것은 결코 형

석이 아니다. 우리 당은 진정으로 조국 통일을 원하며 또 이를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는 것이다. 조국 통일의 위업을 완성하지 않고서는 우리 당이 자기 임무를 완수했다고 말할 수 없다》 (김 일성 《전후 인민 경제 복구 발전을 위하여》 조선 로동당 출판사 1956년 35페지).

이와 같이 우리 당은 조선 인민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그 숭고한 의무감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이것은 또한 우리 혁명 발전의 합법칙성에 대한 심오한 맑스—레닌주의적 분석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우리 당의 령도하의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결정적 력량인 북반부 민주 기지의 거대한 물질적, 정신적 력량 그러고 남반부에서의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을 반대하는 남조선 인민들의 애국적 민주주의적 력량의 장성은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의 전쟁 도발을 저지하며 반동을 제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조성하고 있다. 우리 당은 우리 나라 발전의 이러한 합법칙성에 튼튼히 립각하고 있다.

그러나 조국의 평화적 통일은 단시일에 해결되기 어려운 곤난한 사업으로서 이 사태는 주로 미 제국주의에 의하여 조성되고 있다. 그러나 맑스—레닌주의가 가르치고 있는 바와 같이 제국주의는 필연적으로 멸망하는 것이다. 과거에 우리 나라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중국 절반을 침범하였고 태평양 지역에까지 진출하였던 일제도 쏘련 군대에 의하여 패망 당하고 말았다. 미제도 최강을 자랑하였으나 오늘 그 위신은 여지 없이 추락되고 있으며 날로 패배의 길을 걷고 있다.

특히 우리는 미 제국주의에 대하여 이미 군사 도덕적 패배를 주었으며 우리의 승리는 전 세계 자유 애호 인민들의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을 더욱 고무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 놈들의 전쟁 재도발 책동을 매 걸음마다 폭로 분쇄하며 전 세계 자유 애호 인민들과의 단결을 강화함으로써 미 제국주의 침략자들을 더욱 약화시키며 고립화시킬 수 있는 것이며 그러하여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거케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평화 통일 방안은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평화적 통일은 앉아서 기다릴 것이 아니라 쟁취하기 위하여 투쟁해야 하며 우리의 주체적 력량을 더욱 강화하며 적을 약화 고립시키는 투쟁을 더욱 강화해야 하는 것이다.

5. 제 3차 당 대회에서 제시한 조국의 평화적 통일 방안과 그 실현을 위한 당의 투쟁

우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미제와 리 승만 도배들의 거부와 방해 책동으로 말미암아 전후 우리 공화국 정부가 제기한 거듭되는 평화적 조국 통일 제안은 실현되지 못하고 조선 인민의 절박한 념원인 조국의 평화적 통일 달성은 날로 지연되게 되였다.

그러나 국내외의 정세는 더욱 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는 조선 인민에게 유리하게 전변되여 갔으며 평화적 조국 통일 실현의 가능성은 더욱 풍부해졌다.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장성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 데 대한 우리 당의 현명한 경제 정책을 관철시킨 결과 전후 인민 경제 복구 발전 3개년 계획은 성과적으로 수행되고 있었다. 그리하여 북반부 민주 기지는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일층 강화되였으며 인민 대중의 물질 문화 생활은 급격한 향상의 길을 걷고 있었으며 인민들의 정치 도덕적 통일이 가일층 강화되였다. 뿐만 아니라 공화국의 대외적 위신도 날로 제고되고 전 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과 국가들의 지지 성원이 증대되여 갔다. 이와 반면에 전후 년간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 정책과 리 승만 도당들의 반동 통치는 더욱 더 파산과 위기에 봉착하게 되였으며 남반부 인민 대중 속에서의 반미, 반 리 승만 기세는 날로 증대되여 인민들이 적극적으로 진출할 기운을 보이고 있었다.

특히 국제 관계에서 이 시기는 쏘련을 선두로 한 세계 사회주의 진영 나라들의 가일층의 발전과 단결의 강화, 사회주의

진영을 중심으로 한 세계 평화 애호 력량의 장성, 광범한 평화 지대의 형성 등으로 인하여 평화 력량이 전쟁 도발 세력을 압도하고 있는 것으로 특징 지어진다.

즉 력사의 발전 행정은 미 제국주의자들의 생각 대로가 아니라 쏘련을 선두로 한 사회주의, 민주주의 진영의 인민들과 그 주위에 뭉친 온 세계의 평화 애호 인민들에 의하여 좌우되고 있으며 미제의 《힘의 립장에 선》 정책은 전 세계에서 특히 동방에서 파산을 당하고 그 식민지 지반이 붕괴되여 가고 있었다. 이러한 국제 정세는 미국의 대외적 지위를 날로 약화시키고 있었다.

이와 같은 제반 정세는 미제와 리 승만 도당들의 여하한 발악과 흉책으로도 급격히 발전하는 력사의 발전 방향과 그 속도를 돌려 세울 수는 없게 되였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에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투쟁에 유리한 조건들이 날로 증대하여 갔다. 이와 같은 국내외 정세를 타산한 기초 우에서 우리 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명시하고 그 투쟁을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대책을 취하였다.

1956년 4월에 소집된 력사적인 우리 당 제 3차 대회는 금후 우리 혁명 승리의 휘황한 전망을 가리켜 주었으며 조성된 국내외 정세하에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가장 완성되고 구체화된 실천적 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선언을 채택하였다.

선언은 조선 문제의 종국적인 해결은 조선 인민 자체의 민주주의적 의사에 기초하여 실현되여야 하며, 조선의 통일 정부는 전체 조선 인민의 총선거에 의하여 수립되여야 하며, 일체 외국의 간섭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우리 당의 변함 없는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선언은 조선의 평화적 통일을 가져 오기 위해서는 우선 조선에서 달성된 정전을 공고한 평화에로 전환시키기 위한 제반 조치가 취해져야 하며 또한 조선으로부터 모든 외국 군대는 철거하여야 하며 조선에서의 평화 유지와 조선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 회의가 소집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오늘날 조국의 평화적 통일 독립을 달성하는 길에 있어서 장애는 우선 미제의 남조선 강점과 미제의 충복 리 승만 도당의 가혹한 파쑈 테로 통치가 남반부 인민들에게 초보적인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그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회는 남조선에서 인민 대중에 대한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며 일체 애국적인 정당, 사회 단체 및 개별적 인사들의 정치적 활동의 자유가 보장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선언은 특히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투쟁에 광범한 인민 대중이 참가하며 그들의 애국적 열성과 적극성이 유감 없이 발휘되도록 하기 위하여 현 시기 남조선 로동자, 농민, 청년 학생, 과학 문화인, 녀성, 중소 상공업자들의 절실한 생활상 요구를 해결할 구체적 대책들을 제시하였다. 즉 최저 임금제, 8시간 로동제를 실시할 것, 밭갈이하는 농민에게 토지를 주며 일체 가렴 잡세를 폐지할 것, 학원의 민주화, 남녀 평등권 실현, 중소 기업의 보호 등——이 모든 대책을 취함으로써 도탄에 빠진 남조선 인민 대중의 경제 생활의 안정 및 개선을 기하며 그들의 애국적 열의를 발휘케 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미 정전후 루차 제기한 바와 같이 북반부 민주 기지에서 달성한 제반 경제적 성과 특히 전력, 석탄, 목재 및 기타 북반부 근로자들의 로력적 성과를 남조선 동포들과 나누며 이리함으로써 그들을 하루 속히 구출할 수 있는 확신과 희망을 표명하였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대회는 남북 조선간에 현존하는 부자연한 장벽을 제거하며 남북 조선간의 호상 접촉과 협상을 진행할 데 대한 구체적 방안을 예시하였다. 대회는 조선의 통일에 관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토의하기 위하여 남북 조선 국회, 정부 혹은 정당, 사회 단체 대표들로써 구성되는 상설 위원회를 조직할 것을 제의하였으며 미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념원하는 남조선의 모든

정당, 사회 단체 및 개별적 인사들과의 련합을 실현하여 조국 통일을 위한 공동 전선을 결성하기 위하여 남북 조선 정당, 사회 단체들의 련석 회의 또는 개별적인 정당, 사회 단체, 애국적 인사들과의 회합을 진행할 것을 제의하였다.

우리 당의 이러한 제의는 오직 조국의 운명과 민족의 장래를 위하여서는 온갖 가능성을 리용하며 어떠한 노력도 아끼지 않을 데 대한 진지한 념원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회는 정견, 신앙의 차이를 불문하고 남북 조선의 각 정당, 사회 단체들이 서로 협조하며 공동 전선을 취할 것을 진지하게 호소하였으며 비록 과거에 국가와 인민 앞에 적지 않은 죄과를 범하였던 자라 할지라도 만약 자기의 과오를 뉘우치고 진정으로 조국과 민족의 통일을 평화적으로 달성하려 한다면 그를 환영하며 그와 협상할 것이며 그의 공로와 재능에 따라 통일이 실현되는 차후 수립될 련합 정부에도 참가시켜야 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 당 제 3차 대회는 조선 인민의 절박한 관심사에 대하여 또 다시 명백한 해답을 주었으며 그들에게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대한 휘황한 전망을 보여 주었다.

실로 당 대회 선언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시종일관한 립장의 집중적 표현이며 현 정세하에서 조선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방안으로 된다.

조국 통일에 관한 이 방안의 정당성은 그것이 접수될 수 있는 공정한 방안일 뿐만 아니라 남북의 호상 리해와 접촉에 기초한 평화적 해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데 있다.

이 방안은 국내 문제 해결의 유일하게 정당하고 현실적인 방안이며 회담과 협상이라는 현하 국제 분쟁 문제 해결의 일반적 추세에도 전적으로 부합되는 방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 3차 당 대회가 제시한 평화 통일 방안은 거대한 생활력을 가지고 더욱 광범한 인민들 속에 침투되여 갔으며 평화적 조국 통일을 위한 조선 인민의 투쟁을 새로운 질

망과 힘으로써 강력히 고무 추동하고 있다.

우리 당 제 3차 대회 결정을 지지하는 평양시 군중 대회를 비롯하여 공화국 각지에서 진행된 각종 집회들에서는 이 방안을 지지하며 그 실행을 위한 결의를 다지였으며 조국 전선 산하의 각 정당, 사회 단체들과 또 남북 조선의 수다한 애국 인사들도 이를 지지하고 그의 실현을 위한 투쟁에 적극 진출하여 나섰다.

1956년 5월에 진행된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 중앙 위원회 확대 회의는 우리 당의 조국 통일 방안을 적극 지지하면서 이 방안 실천을 위한 투쟁에 전 민족적으로 동원될 것을 호소하는 호소문을 채택하였다.

제 3차 대회의 력사적 선언은 남반부 인민들 속에도 깊이 침투되여 그들의 투쟁을 더욱 고무하였으며 또한 재일 및 재하와이 동포들과 전 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의 열렬한 지지와 환영을 받았다.

우리 당은 이 방안에 대한 인민 대중의 적극적인 지지에 의거하면서 이를 추진하기 위한 투쟁을 강력히 조직 전개하여 나섰다.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우선 남북간의 긴장된 분위기를 완화하며 인민들에 대한 군사적 부담을 더욱 경감시킬 목적으로 1956년 8월 말까지 인민군 무력중에서 8만 명을 축소하는 평화적 조치를 취하였으며 남조선 당국이 먼저 무력 행사를 하지 않는 한 공화국 정부는 종전에도 그러했던 바와 같이 결코 남조선에 대하여 무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란 것을 엄숙히 선언하였다. 이 조치는 제 3차 당 대회의 선언에 명시된 평화적 조국 통일 방책을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적 행동에 옮긴 산 모범의 하나로 되는 동시에 소위 《남침》의 위협성을 떠벌리면서 전쟁 준비와 군비 확장에 광분하고 있는 미제와 리 승만 도배에 대한 심대한 타격으로 되였다.

그리고 1956년 11월에 진행된 최고 인민 회의 제 12차 회의에서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남북 조선이 공동 노력을

경주할 것을 호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대한 민국 민의원》과 전체 남조선 사회계에 보내는 최고 인민 회의의 서한을 채택하였다. 서한에서는 당면한 최고 리상의 전 민족적 과업으로 되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 달성을 위하여 조선으로부터의 일체 외국 군대의 철거, 남북 군비 축소 회담의 지지, 정전 상태의 완전한 평화 상태로의 전환을 위하여 《대한 민국 민의원》과 전체 남조선 사회계가 투쟁할 것을 제의하는 동시에 이 제의의 실현 방도를 토의하기 위하여 《대한 민국 민의원》 대표 또는 개별적 인사들과 임의의 장소에서 조속히 회담할 데 대한 희망을 표시하였다.

또한 남북간의 호상 접촉과 련계의 실현을 위하여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제 4차 대회와 제 2차 조선 작가 대회들에서는 남반부 청년 학생 및 작가들에게 보내는 호소문과 편지를 각각 채택하였으며 1957년 10월 7일 공화국 대내외 상업상은 공화국 정부의 위임에 의하여 남북 조선간에 통상과 물자 교역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를 남조선 당국에 제의하였다.

뿐만 아니라 공화국 정부와 북반부 인민들은 이 시기 남반부 인민들의 처참한 생활 상태에 대하여 계속 동포애를 표시하고 10만 석의 구호미와 구제 물자를 제공할 데 대한 제의를 하였다.

그러나 미제와 리 승만 도배는 이 모든 정당한 제의들을 계속 묵살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전을 더욱 불안정한 상태로 끌어 넣으며 조선에서 긴장 상태를 가일층 격화시키기 위하여 발광적으로 날뛰였다.

미제는 이 시기 국제 긴장 상태를 격화시키기 위하여 애급과 웽그리야에 대한 도발적 책동을 감행하는 한편 남조선에서 전쟁 도발을 위한 모략적 책동을 일층 로골적으로 감행하였다.

미제는 우선 남조선 지역에서의 중립국 감독 위원회 시찰 소조들의 합법적 활동을 정지시키는 한편 정전 협정의 기본적인 조항들을 페기할 것을 일방적으로 성명하였다. 뿐만 아니라 놈들은 1957년 7월 《유엔군 사령부》를 도꾜로부터 서울에

끌어 들이며 신형 무기를 반입하여 남조선을 미제의 원자 기지로 전변시키려고 광분하며 리 승만 괴뢰 정권을 유엔에 가입시키려고 책동하였다.

다른 한편 미제는 남조선 경제를 더 본격적으로 략탈하기 위하여 1956년 11월에 리 승만 도배들과 가장 침략적인 《한미 우호 통상 및 항해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리하여 남조선의 일체 경제는 미제 독점가들에게 완전히 예속되게 되였으며 남조선의 민족 경제는 더 파괴와 몰락의 길을 걷게 되였다.

이와 함께 남조선에서의 파쑈 테로 통치는 더욱 우심해 갔으며 인민들의 생활상 권리와 자유에 대한 초보적인 요구와 평화 통일에 대한 모든 사소한 표현들까지도 가혹한 탄압을 당하게 되였다. 그리고 더우기 남조선에서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미제 침략자들의 조선 인민에 대한 민족적 모욕과 만행은 더욱 증대되였다. 천진란만한 어린이와 부녀자를 함부로 쏘아 죽이며 마을과 거리를 습격하고 재물을 략탈하는 양키들의 살인 강도 행위가 백주에 공공연히 감행되고 있었다.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남조선에서의 미제와 리 승만 도당들의 이러한 도발적 행동과 만행에 대하여 견결히 항의 규탄하면서 정전 협정의 엄격한 준수와 평화적 조국 통일 실현을 위하여 더욱 완강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당은 제 3차 대회가 제시한 기본 방향에 립각하여 조국 통일 실현의 튼튼한 담보로 되는 북반부 민주 기지를 일층 강화하기 위하여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시킴에 자기의 전 력량을 동원하였다.

우리 당의 옳바른 경제 정책과 그의 지도에 의하여 전후 3개년 인민 경제 계획은 성과적으로 수행되였으며 그에 기초하여 조선 인민은 1957년부터 우리 나라 력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5개년 계획을 실행하는 길에 들어 섰다.

5개년 계획 수행에로의 이행은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에서 새로운 단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제 1차 5개년 계획은 우리 인민 경제의 락후성을 완전히

퇴치하고 우리 나라를 자립적인 공업—농업 국가로 전변시키며 우리 인민의 의식주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인민들은 사회주의 건설의 명확한 전망을 보여 주는 5개년 계획에 일층 고무되면서 그 실행을 위한 장엄한 투쟁에 힘차게 궐기하였다.

특히 우리 당 중앙 위원회 1956년 12월 전원 회의 결정 실행 행정에서 우리의 영웅적 로동 계급을 선두로 한 전체 근로 대중은 일찌기 볼 수 없던 높은 로력적 열성과 무궁무진한 창발성을 발휘하였다.

그 결과 5개년 계획의 첫해인 1957년에 공업 생산은 전년에 비하여 144%로 장성하였으며 알곡 총수확고는 320만 톤에 달하였다. 그리고 농촌 경리의 협동화도 기본적으로 완성되였으며 도시와 농촌에서 생산 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는 결정적으로 승리하였다.

이와 같이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승리하고 있는 조건하에서 로농 동맹을 기초로 한 인민 대중의 정치 도덕적 통일은 새로운 사회주의적 토대 우에서 더욱 강화되였다.

바로 최근 년간에 진행된 지방 주권 기관 및 최고 인민 회의 선거의 빛나는 승리는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에 대한 전 인민적 지지와 신뢰의 표시였으며 인민 대중들의 정치 도덕적 통일의 장엄한 시위로 되였던 것이다.

이 선거를 통하여 혁명의 승리를 위한 강력한 무기인 인민 정권은 상부로부터 하부 말단에 이르기까지 더 한층 공고화되였다.

그리고 최고 인민 회의 제 2기 제 1차 회의에서 전체 조선 인민의 한결같은 의사를 반영하여 조선 인민을 항상 승리와 행복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한 정부 구성을 더욱 강화한 사실은 우리 혁명 과업 수행을 촉진시킴에 있어서 중요한 정치적 의의를 가진다.

이와 같이 하여 북반부에서는 우리 당의 지도하에 사회주의

건설에서 일대 고조기에 들어 섰으며 달성한 거대한 정치, 경제적 성과에 기초하여 북반부 민주 기지는 일층 강화되여 갔다. 그리하여 평화적 조국 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는 조선 인민 앞에는 더욱 유리한 전망이 열려지게 되였다.

우리 인민이 달성한 이러한 성과는 무엇보다도 제 3차 당 대회 이후 우리 혁명의 참모부인 우리 당 대렬이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공고화되고 그의 전투력과 령도적 역할이 가일층 제고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최근 년간에 국제 반동 세력은 사회주의 진영을 반대하며 특히 우리 맑스주의 당들을 내외로부터 와해하기 위하여 갖은 악랄한 책동을 다하였으며 그와 때를 같이하여 최 창익, 박 창옥 도당들은 우리 당과 정부를 전복하며 우리의 사회주의 건설을 파탄시키기 위하여 반당 반혁명 음모를 로골적으로 획책하여 나섰다.

그러나 우리 당은 당 내외의 원쑤들의 간악한 도발적 공세를 제때에 분쇄하면서 확고부동한 태세를 견지하였다. 여기에 있어서 최 창익 도당의 반당 반혁명적 음모를 제때에 폭로 분쇄한 우리 당 중앙 위원회 1956년 8월 전원 회의는 우리 혁명의 운명에서 실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8월 전원 회의는 당 중앙 위원회의 주위에 철통 같이 단결된 우리 당의 위대한 통일에 대한 시위였으며, 여하한 시련도 능히 극복 타개하고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당의 강대성과 견고성에 대한 시위로 되였다.

8월 전원 회의가 있은 후 우리 당의 전투력은 더욱 더 강화되였다.

당 단체들과 당원들은 종파 분자들과 그들이 뿌려 놓은 여독을 청산하기 위한 전 당적인 심각한 사상 투쟁을 전개하였으며 당의 순결성과 통일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자기들의 당성을 더욱 단련하여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 중앙 위원회의 주위에 일층 굳게 결속되였다.

우리 당의 이러한 강화 발전에 따라 모든 분야에서 우리

혁명 과업은 더 성과적으로 수행되여 갔다.

이상과 같은 제 사실들은 평화적 조국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 혁명의 주체적 력량이 비할 바 없이 장성 강화되였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이와 반면에 최근 남반부의 정세는 남조선에서의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의 식민지 통치가 정치 경제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하고 있는 것으로 특징 지어지고 있다.

지난 10여년 간에 걸치는 미제의 식민지 통치는 남반부 인민으로 하여금 그대로는 더 살아 나갈 수 없는 처지에 이르게 하였다.

남반부 인민은 오직 미제의 식민지 통치를 폐기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달성함으로써만 참을 수 없는 고난으로부터 벗어 날 수 있다는 것을 더욱 더 깊이 깨닫게 되였다. 그리고 남조선 지배층 내부에서의 모순은 더욱 첨예화되고 있는바 리 승만 도당에 대한 야당파들의 불만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미제와 리 승만 역도가 인민 대중으로부터 더욱 고립되고 있으며 그들의 통치 지반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이와 동시에 이는 또한 오늘 남조선에서 로동자와 농민을 비롯하여 가장 광범한 계층들을 망라하는 모든 애국적 력량의 통일 전선을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더 성숙되여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이러한 국내 정세와 함께 최근 국제 정세에서도 심각한 변화가 일어 나고 있다.

1957년 11월 모쓰크바에서 진행된 위대한 사회주의 10월 혁명 40주년 기념 경축 행사와 각국 공산당 및 로동당들의 회의가 명백히 보여 준 바와 같이 오늘 전 세계 사회주의 력량은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되고 있으며 쏘련을 중심으로 하여 확고히 통일 단결되고 있다.

오늘날 쏘련과 그 주위에 단결된 사회주의 진영은 력량 관계에 있어서나 그 경제 발전의 속도에 있어서나 그리고 또한

일련의 중요 과학 기술 분야에서 제국주의 진영을 훨씬 릉가하고 있으며 전 세계 정세 발전에서 결정적 요인으로 되고 있다. 오늘 사회주의는 세계 인구의 3분의 1 이상을 포괄하는 세계적 체계로 전변되고 있으며 세계 공업 생산의 약 3분의 1과 알곡 총수확고의 약 40%가 이 진영 국가들에서 생산되고 있다.

특히 쏘련에서의 대륙간 탄도 로케트 제조의 성공과 인공 지구 위성의 발사는 무엇보다도 미국의 소위 《힘의 우세》에 관한 신화를 산산이 분쇄하였으며 미국의 《힘의 립장에 선》 정책의 중심 고리인 세계적 원자 전략 계획을 철저히 파탄시켜 놓았다.

최근 시기 웽그리야와 애굽 및 씨리아 등에서의 사태가 명백히 실증하여 준 바와 같이 오늘날 사회주의 진영의 위력과 불패의 통일은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이 어느 한 사회주의 국가도 감히 침범하지 못하며 세계의 어느 한 지역에서도 함부로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게끔 그들을 제압하는 결정적 힘으로 되고 있다.

발전하는 사회주의에 고무되여 최근 식민지, 반식민지 및 예속 국가들에서는 민족 해방 투쟁이 비상히 장성 강화되고 있으며 이미 아세아의 전 지역과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에서 제국주의 식민지 체계는 완전히 붕괴되였다. 오늘 중화 인민 공화국,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월남 민주 공화국을 제외하고도 7억 이상의 인구가 식민지적 억압으로부터 해방되여 자주적인 독립 국가를 건설하고 있으며 사회주의 진영과 함께 광활한 평화 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와 반면에 오늘 제국주의는 더 심각한 위기와 몰락의 길을 걷고 있으며 그 내부에서의 계급적 대립과 제국주의 국가들 상호간의 모순은 더욱 더 격화되고 있다. 오늘 이 나라들에서의 전쟁을 반대하는 평화 력량은 미증유의 규모로 장성하고 있다.

이리하여 근 10억에 달하는 사회주의 국가 인민들과 민족적 독립을 달성한 7억 이상의 동방 인민들이 제국주의 침략 세

력에 대립하고 있으며 제국주의 국가 주민들의 압도적 다수가 자본주의 독점체들의 군비 경쟁과 전쟁 도발 정책을 반대하고 평화를 지지하여 힘차게 궐기하고 있다. 국제 정세에서의 이러한 근본적 변화는 우리 혁명 수행에 있어서 극히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여 주고 있다.

국제 국내 정세에서의 이러한 변화와 관련하여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평화 공세를 결정적으로 취할 가능성이 조성되였다.

이러한 환경하에서 소집된 우리 당 중앙 위원회 1957년 12월 확대 전원 회의는 조성된 국내외 정세를 심각히 분석한 기초우에서 우리 인민 앞에 나선 가장 절박한 과업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과 구체적 과업들을 명시하였다.

12월 확대 전원 회의는 조선에서의 정전을 공고한 평화에로 전환시키며 중국 인민 지원군까지도 포함한 일체 외국 군대의 조선으로부터의 철거를 강력히 요구하면서 어떠한 외국의 간섭도 없이 조선 인민의 민주주의적 의사에 기초하여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달성할 데 대한 우리 당의 일관한 립장과 남북 조선간의 접촉을 각 방면으로 강화함으로써 평화적 조국 통일을 촉진시킬 데 대한 당의 정당한 방안들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천명하였다.

확대 전원 회의는 현 시기 미제와 리 승만 역도들이 인민 대중으로부터 고립되고 있으며 그들의 통치적 지반이 약화되여 가고 있는 조건하에서 남조선의 로동자, 농민들을 비롯한 가장 광범한 계층들을 망라하는 모든 애국적 력량의 통일 전선의 형성은 성숙된 문제라고 인정하면서 남조선의 모든 애국적 력량들을 미제와 리 승만 도당들을 반대하는 통일 전선에로 련합시킬 것을 제시하였다. 그와 동시에 확대 전원 회의는 미제와 리 승만 도배를 반대하여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지지하는 어떠한 정당이나 단체나 어떠한 계층들을 막론하고 그들과 함께 련합할 것이며 공동으로 투쟁할 것이라는 것을 거듭 주장하였으며

또한 남북을 통하여 자유로이 정당 활동을 할 데 대한 현실적 방안도 제기하였다.

우리 당은 남북간의 인민들의 자유 왕래, 정당들의 자유 활동을 통하여 남조선 인민들과 정치 활동가들로 하여금 북반부에 이룩된 정치, 경제, 문화 각 방면의 찬란한 성과를 직접 보게 함으로써 우리 당과 정부의 정책의 정당성과 조선 민족의 륭성 발전의 길을 깨닫게 하자는 것이며 그리하여 평화적 통일을 위한 투쟁에 그들이 적극적으로 참가하도록 고무하자는 것이다. 우리가 북반부에 이룩한 사업이 정당하며 조선 인민의 절실한 념원을 구현한 것인 것만큼 조선 사람으로서의 량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에 공명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를 지지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남조선 인민들 가운데서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의 반인민적, 반동적, 식민지적 정책은 더욱 더 뚜렷이 폭로될 것이며 남조선 인민들은 미제와 리 승만 역도를 더욱 더 강력하게 배격 규탄하게 될 것이다. 우리 당은 자체의 사업의 정당성으로 하여 얻을 수 있는 이와 같은 남조선 인민의 지지를 확신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확신에 기초하여 12월 확대 전원 회의는 전 당이 굳게 단합하여 평화적 조국 통일 위업을 달성하기 위한 튼튼한 담보로 되는 북반부의 민주 기지를 철옹성 같이 강화하며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제 1차 5개년 계획의 성과적 수행에 모든 력량을 동원할 것을 호소하였다.

12월 확대 전원 회의에서 명시된 우리 당의 평화적 조국 통일 방안은 현 시기 조선 문제 해결을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가장 현실적인 대책인바 이는 원쑤들에 비한 우리 력량의 강대성에 대한 확신에서부터 나온 것이다.

12월 확대 전원 회의에 뒤이어 12월 18~19일에 진행된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 제 2차 대회는 12월 확대 전원 회의에서 제시된 평화적 조국 통일 방안에 기초하여 평화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투쟁에로 전체 인민들을 불러 일으키는 호소문을 발표하였다.

이 대회에서는 또한 원자 및 수소 무기 시험의 즉시 중지와 그의 생산 및 사용의 무조건 금지를 요구하며 남조선을 원자 기지로 전변시키려는 미제의 책동을 반대하며 조선에서 미국 침략 군대의 철거를 요구하여 전 인민적 서명 운동을 전개할 것을 결정하였다.

우리 당 중앙 위원회 12월 확대 전원 회의와 조국 전선 제 2차 대회 문헌들은 모쓰크바 회의 선언들과 함께 전체 조선 인민에게 조선에서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의 어떠한 도발적 책동도 능히 제압 파탄시키고 평화를 유지 공고화하며 조선 인민 자신의 손으로 조국의 평화적 통일 위업을 달성할 수 있다는 필승의 신심을 북돋아 주었으며 그 투쟁에로 인민들을 더욱 힘차게 고무하였다.

조선 인민은 이 문헌들을 한결같이 지지하면서 조선에서 정전을 공고한 평화에로 전환시키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한 신심과 결의에 더욱 충만되였다.

조선 인민의 일치한 념원은 조국 전선 제 2차 대회의 결정에 근거한 전 인민적 서명 운동에서 더욱 명백히 표현되였는바 1958년 2월 15일 현재 이미 620만 명 이상이 원자 및 수소 무기 시험의 즉시 중지와 이 무기의 생산 및 사용의 무조건 금지를 요구하며 남조선을 원자 기지로 전변시키려는 미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을 반대하며 조선에서 미국 침략 군대의 철거를 요구하여 서명하였다.

조선 인민의 이러한 한결같은 념원에 대하여 미제와 리 승만 도당들은 계속 조선에서 평화를 위협하며 긴장 상태를 격화시키려고 더욱 로골적인 책동을 감행하여 나섰다.

놈들은 특히 1958년 1월 군사 분계선 남쪽 부근 일대에서 대규모적인 《원자 공격전》 련습까지 감행하였으며 남조선에 신형 무기를 반입하여 원자 무기의 기지를 창설함에 광분하였다.

이것은 남조선에서 날로 앙양되는 반미, 반 리 승만 투쟁에 의하여 미제와 리 승만 역도들이 추락된 자기의 위신을 만회할

길이 없어 결국 무력 시위로써 인민들을 놀래우자는 것이며 이 것은 그들이 더욱 더 궁지에 빠져 들어 가고 있다는 것을 실증하는 것이다.

그런데 놈들의 이러한 행동은 조선과 극동의 평화를 엄중히 위협하는 악랄한 도발 행위이다.

이러한 정세하에서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새로운 유리한 국제 정세에 근거하여 조선과 극동에서의 평화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며 긴장 상태를 완화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취하였다.

1958년 2월 5일 공화국 정부는 현하 조성된 정세하에서 조선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새로운 국면을 타개하기 위하여 력사적 성명을 발표하고 다시금 평화적 통일에 대한 가장 합리적인 방도를 제기하였다.

이 성명에서 공화국 정부는 조선에서 일체 외국 군대의 철거 문제와 조선의 평화적 통일 문제는 이미 성숙되였으며 지체없이 해결되여야 할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미국 군대와 또한 중국 인민 지원군을 포함한 모든 외국 군대가 조선으로부터 동시에 철거할 것과 외국군대가 철퇴한 후 일정한 기한내에 전 조선 자유 선거(중립국 기구의 감시하에 실시될 수 있다)를 실시함으로써 조선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할 것을 엄숙히 천명하였다.

성명은 또한 남북간의 경제, 문화 교류의 실현과 남북의 군비를 최소 한도로 축소할 것을 제기하였다.

이 성명에서 제기한 공화국 정부의 제안들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요구하는 조선 인민의 민족적 념원을 반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 국제 정세하에서 시기 적절하며 현실적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화 인민 공화국 정부는 조선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적극 추진시키려는 시종일관한 립장에 기초하여 2월 7일부 성명에서 우리 공화국 정부의 모든 제안들을 전적으로 지지하였으며 또한 조선 정부와 협의한 후 중국 인민 지원군에게 조선으로부터 솔선 철거할 것을 제의하였다.

뒤이어 조중 량국 정부는 2월 19일 부 공동 성명에서

중국 인민 지원군을 1958년 말까지 계단별로 완전히 조선으로부터 철거할 것을 결정하였다.

조선으로부터 중국 인민 지원군을 전부 철거시킬 데 대한 조중측의 결정은 미 제국주의자들이 오늘 조선에 조성시킨 난국을 타개하며 조선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추동하며 또한 극동에서의 긴장 상태를 더욱 완화하기 위한 주동적인 중대한 조치이다.

이는 미제로 하여금 남조선에 군대를 주둔시킬 하등의 구실도 갖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 조치이다. 만일 미제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들이 조선에서 전쟁을 재도발하며 세계 평화를 위협하려는 자체의 정체를 남김 없이 드러내는 것 밖에는 안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조치는 조선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를 위하여 큰 의의를 갖는 조치이다.

이 조치는 이와 같이 가장 정당한 것이였으므로 쏘련을 선두로 하는 형제 국가 인민들과 평화 애호 인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환영을 받았다.

특히 쏘련 정부는 조중 량국 정부의 공동 성명을 지지하는 2월 20일 부 자기의 성명에서 중국 인민 지원군의 솔선 철거를 포함한 조중 량국의 새로운 발기는 조선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국제 긴장 상태의 완화, 국가들 간의 신뢰의 공고화 및 평화의 공고화를 위한 하나의 중요한 조치》여라고 지적하면서 미국과 그 추종 국가 군대들도 남조선으로부터 철퇴할 것을 요구하였다.

조중 량국 정부의 이 중대한 조치는 또한 아세아의 평화 애호 국가들과 일련의 자본주의 국가들에서도 광범한 지지와 찬동을 받게 되였다.

지어 영국 외무성 대변인까지도 《영국 정부는 그 지역의 긴장 상태를 완화하며 조선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환영한다》고 언명하지 않을 수 없었다.

미국 침략군이 계속 남조선을 강점하고 있는 조건하에서

중국 인민 지원군이 솔선 철거할 데 대한 이 대담한 조치는 평화를 수호하는 사업에서 조중 인민이 충분한 신심을 가지고 있다는 표시이며 자기의 력량에 대한 자신으로 충만되여 있다는 증시로 되는 것이다. 만약 미국 정부와 리 승만 도당이 조선의 평화 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한 조중측의 적극적인 행동을 연약성의 표현으로 간주한다면 그들은 다시 한번 커다란 오산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는 것이다.

중국 인민 지원군은 자기의 숭고한 국제주의적 의무를 완수하고 금번 조선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진시키며 극동에서의 긴장 상태의 완화를 위하여 지난 10월 26일까지 솔선 철거를 완료하였다.

중국 인민 지원군의 솔선 철거와 관련하여 오늘날 미 제국주의자들이 자기의 침략 군대를 남조선에 계속 주둔시킬 하등의 근거도, 구실도 있을 수 없다.

때문에 공화국 정부는 1958년 10월 28일 중국 인민 지원군 철거 완료와 관련한 자기의 성명에서 《오늘 조선으로부터의 중국 인민 지원군의 주동적인 철거는 조선에서의 긴장 상태를 완화하며 조선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진함에 있어서 보다 새로운 긍정적인 국면을 열어 놓았다》라고 지적하면서 미제 침략 군대는 남조선으로부터 즉시 철거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경히 주장하였다.

중국 인민 지원군이 조선으로부터 철거를 완료함으로써 조선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새로운 긍정적 국면이 열린 바로 지금 미제 앞에는 그가 원하건 않건 간에 조선으로부터 자국 군대를 철거하여야 할 준엄한 현실이 조성되고 있다.

오늘 조선 인민과 전 세계 인민들은 미국이 취하는 행동에 대하여 주목을 집중하고 있다.

조선으로부터 《미군 당장 나가라!》는 조선 인민과 전 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미제 침략군도 중국 인민 지원군의 모범을 따라 남조선으로부터 시급히 철거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제국주의자들은 조선 문제 해결의 《중심》 고리가 우선 군대를 철거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다른 곳에 있는듯이 떠벌리면서 자기의 침략 행위를 엄폐하려고 급급하고 있다.

놈들은 바로 중국 인민 지원군이 조선으로부터 주동적 철거를 실시하던 그 시각에도 계속 정전 협정을 란폭하게 유린하면서 남조선에 원자 무기를 반입한 데 뒤이어 유도탄 기지까지 설치하는 등 도발적 책동을 감행하였다.

놈들의 이러한 도발적 행동은 비단 평화 애호적 조선 인민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조중 량국 정부의 모범을 따라 미군도 즉시 남조선으로부터 철거할 것을 요구하는 전 세계 평화 애호 인민의 비등된 여론에 대한 직접적 도전인 것이다.

미국 침략 계층이 남조선으로부터의 철거를 거부하며 새로운 도발적 행위를 감행하면 할수록 그는 평화의 원쑤로서, 침략의 원흉으로서 전 세계 모든 인민들로부터의 더욱 준렬한 규탄을 면할 수 없으며 그의 립장을 더욱 궁지에 빠져 들어 가게 할 뿐이다.

최근 미국 신문 《워싱톤 포스트 앤드 타임스 헤랄드》지까지도 《중국이 자기 군대를 철거하는데 미군이 그대로 남아 있는다면 미국은 범죄자로서 규탄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우려를 표명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닌 것이다.

오늘 미제의 발악적 책동이 감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 문제 해결의 새로운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조중 량국 정부의 주동적 조치에 의하여 조선의 평화적 통일의 가능성은 날로 더욱 성숙되여 가고 있다.

이러한 정세하에서 최근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창건 10주년을 맞이 하여 미제 강점하의 남조선에서 신음하는 남반부 실업자들과 류랑 고아들을 구제할 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이 결정에서 우리 당과 정부는 남반부 실업자들과 류랑 고아들을 위하여 15만 석의 백미, 500만 메터의 직물, 400만 켤레의 신발, 1만 톤의 어류를 무상

으로 제공하며 남반부 거리에서 의탁할 곳이 없이 류랑하는 전재 고아들을 맡아서 양육할 것을 제의하였으며 앞으로 3,000명의 대학생들에게 항구적으로 매월 1,000원씩의 장학금을 제공할 기금을 설정하였다.

이 결정은 숭고한 동포애에서 우러나온 것이며 북반부에서 이룩된 풍부한 물질적 재부를 남반부 동포들과 나누며 그들을 구출하자는 념원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므로 이 결정은 북반부 방방곡곡에서 전체 인민들의 열렬한 지지와 환영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 정당성과 인도주의적 정신을 찬양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열렬한 환호 속에서 우리 측은 이 결정의 조속한 실현을 위하여 우리의 제안을 접수할 것을 수차에 걸쳐 남조선 당국에 제의하였다. 그러나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은 이 결정이 실현되어 남조선 인민들에게 구원의 손'길이 미치는 것마저 극력 방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놈들의 책동에 관계 없이 이 결정은 북반부 인민 민주주의 제도의 우월성과 동포애에 넘치는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인민적 시책을 남반부 인민들에게 다시 한번 확증해 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조치들은 남반부 인민들의 반미, 반 리 승만 투쟁을 더 한층 고무하고 있다.

오늘 우리 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조선 인민의 정당한 위업이 멀지 않은 장래에 반드시 달성되리라는 확고한 신심 밑에 그의 실현을 위하여 더욱 완강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 × ×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해방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항상 조선 인민의 절실한 념원으로 되고 있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우리 당의 투쟁은 시종일관 진지하였으며 그의 방책은 정당하였다.

우리 당의 평화적 조국 통일 방책은 그것이 정당하기 때문에 전체 조선 인민들과 전 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로부터 한결

같은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런데 우리 당의 평화적 조국 통일 방책의 정당성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전체 조선 인민의 일치한 념원을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의 실현을 위한 현실적 가능성을 옳게 타산하고 있다는 데 있다.

이 현실적 가능성은 객관적, 합법칙적으로 장성 발전하는 국내 국외의 인력의 요인들의 결합에 의하여 조성되고 있으며 날로 더욱 풍부해지고 있다.

오늘날 우리 나라 국내외에 조성된 정세들은 우리 나라의 통일 독립이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객관적인 현실적 가능성을 더욱 조성하면서 있다.

그것은 우선 평화적 조국 통일을 실현함에 있어서 튼튼한 담보로 되는 북반부 민주 기지가 철옹성 같이 강화되였고 북반부에서 사회주의가 결정적으로 승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오늘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건설은 전례 없는 고조기에 처하고 있으며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 중앙 위원회 9월 전원 회의에서 전체 당원들에게 보낸 편지를 받들고 천리마를 탄 기세로 사회주의의 높은 봉우리를 향하여 달리고 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생활에는 매일과 같이 새로운 혁신, 새로운 변혁이 일어 나고 있다.

우리 근로자들의 불굴의 투지와 창조적 로력에 의하여 인민 경제는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바 작년에 비하여 금년에는 또한 공업 생산에서 35% 이상 더 장성될 것이다. 그리하여 금년 1년 동안에 우리 공업은 전쟁전 1946년부터 1949년까지의 4년 간에 생산된 것보다 1.5배나 되는 공업 제품을 생산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 농촌 경리는 금년에 390만 톤(저류의 환산을 포함하여)의 알곡을 생산하였다.

이리하여 오늘 우리 근로자들은 새월을 앞당겨 전진하고 있으며 제 1차 5개년 계획을 2년 단축하여 명년에 완수할 결의에 충만되고 있다.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건설이 촉진됨에 따라 우리의 혁명

력량은 급속히 장성되고 있으며 우리의 민주 기지는 철옹성 같이 강화되고 있다.

이 장성 강화된 혁명적 민주 기지의 위력은 우리 나라에서 적들의 도발적 음모를 제압 파탄시키는 결정적 힘으로 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는 가장 믿음직한 담보로 되고 있다.

이와 함께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달성할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의 하나는 남반부에서 혁명 세력이 날로 장성 강화되고 있는 반면에 미제와 리 승만 도당들의 침략적 반동 통치는 더욱 더 심각한 위기에 빠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오늘 남조선은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완전한 파국에 처하여 있다.

리 승만 정권은 이미 인민 대중으로부터 극도로 고립되여 있으며 미국 군대의 엄호가 없이는 단 몇 날도 유지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미국의 사회 여론도 인정하고 있는바 미국 잡지 《애트란타 꼬스티듀숀》지는 지난 3월 자기의 사설에서 《현재 남조선 정부는 광범한 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만약 유엔군이 철거한다면 얼마 안 가서 남조선 정부는 전복되여 버릴 것이다》라고 썼다.

그리고 오늘 남조선의 경제는 극도로 파산 령락되고 있으며 공업 생산은 해방전 수준의 절반밖에 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약간 남아 있는 남조선 중소 기업소들은 미국 독점 자본과 극소수의 예속 자본가들의 압박 밑에서 원료, 동력 및 자금의 부족으로 인하여 그의 약 80% 이상이 조업을 중지 또는 단축하고 있다.

공업과 함께 남조선의 농촌 경리도 수습할 수 없는 파탄 상태에 놓여 있다. 그리하여 과거 우리 나라의 곡창으로 알려진 남조선은 매년 500만 석 이상의 량곡을 수입하지 않으면 안 될 만성적인 기근 지대로 전변되였다.

그리고 오늘 남조선에서 실업자, 반실업자의 수는 420만 이상에 달하고 있으며 수십만의 걸식 아동들이 거리를 헤매고

있다.》

오늘 남조선은 그의 위정자들까지도 자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4천년대의 민생고》를 겪고 있다.

이러한 형편과 함께 미제 침략군의 행패와 민족적 모욕 등으로 인하여 남조선 인민은 더는 참을 수 없는 지경에 빠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남반부 인민들 속에서 반미, 반 리 승만 기세는 날로 앙양되고 있다. 그들은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의 혹심한 탄압과 학살 만행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적 권리와 생활상 요구의 관철을 위한 시위와 파업을 단행하며 삐라를 살포하는 등 각종 방법으로 투쟁을 확대하고 있다. 1957년 중 남조선 출판물에 반영된 로동자, 농민, 학생들의 반미, 반 리 승만 투쟁 건수만 하더라도 226건에 달하고 있으며 금년에 들어 와서는 더욱 증가하고 있다.

김 일성 동지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현 남조선 정세의 특징은 광범한 인민 대중이 살 길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였으며 그들 속에서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을 반대하여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기운이 날로 높아가고 있다는 그것이다》(체코슬로바키야 방송 및 텔레비죤 위원회 위원장과의 담화에서, 로동 신문 1958년 9월 3일).

뿐만 아니라 오늘 리 승만 괴뢰 도당의 지배층 내부에서는 내부 모순이 더욱 더 격화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여야당 간의 모순 뿐만 아니라 리 승만 직계인 자유당 내부에서의 모순 대립도 격화되고 있는바 지난 《민의원》 선거시에 벌러진 개싸움은 바로 이들 내부의 혼란이 수습할 수 없는 심각성을 띠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 주었다.

이 모든 사실들은 리 승만 파쑈 통치가 광범한 인민 대중으로부터는 물론 일부 지배층으로부터도 비난과 규탄을 받고 있으며 그들의 내부 모순이 격화되고 있으며 통치 지반이 뒤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와 같이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요구하고 미제와 리 승만

도배들을 반대하는 남조선 각 계층 인민들의 투쟁이 날로 강해지며 반동 진영 내부의 대립과 모순이 점차 격화되고 있는 사실들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달성할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의 하나로 된다. 앞으로 남조선의 더 광범한 애국적 력량이 단합되여 이 투쟁에 궐기하면 할수록 조국의 평화적 통일 위업은 더욱 촉진되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다음으로 현 시기에 있어서 우리에게 유리하게 조성된 국제 정세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 달성의 중요 조건으로 된다는 사실이다. 왜냐 하면 우리 나라 혁명이 국제 혁명 운동과 떼여 낼 수 없는 련대성을 가지고 있으니만큼 국제 정세가 우리 혁명 수행에 리롭게 조성되였는가 또는 그렇지 못한가 하는 문제는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현 국제 정세의 기본 특징은 김 일성 동지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회주의가 세계 무대에서 결정적으로 승리하고 있으며 제국주의 세력은 더욱 약화되고 몰락의 길을 재촉하고 있는》 그것이다.

오늘 사회주의 진영의 불패의 위력과 평화 세력은 제국주의자들의 새 전쟁 도발 정책을 걸음마다 파탄시킬 수 있으리만큼 강대하다.

위대한 쏘련의 공업 발전과 과학 기술 성과의 집중적 표현인 3차에 걸친 인공 위성 발사와 대륙간 탄도 로케트 제조의 완성, 그리고 전체 사회주의 진영의 급속한 발전 강화는 미 제국주의자들의 《힘의 립장에 선》 정책을 완전히 파탄시키고 있다.

사회주의 진영의 위력은 날이 갈수록 급격히 장성 강화되고 있는바 이는 오늘날 국제 정세 발전의 결정적 동력으로서 제국주의 침략을 반대하고 민족적 독립과 평화와 진보를 위한 일체 진보적 력량의 투쟁을 고무하는 강유력한 국제적 보루로 되고 있다.

금년 상반년 간에 사회주의 진영의 공업 총생산은 작년 동기에 비하여 13% 증가되였으며 오늘 쏘련과 인민 민주주의 국가들에서는 인민 경제 발전에서 대고조가 일어나고

있다.

금년에 쏘련 인민은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승리를 거두고 있으며 인구 1인당 제품 생산에서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을 따라 잡으며 앞설 데 대한 쏘련의 기본 경제 과업의 해결에서 새로운 중요한 전진을 이루고 있다. 금년 상반년에 쏘련에서의 공업 생산액은 작년 동기에 비하여 10.5% 증가된 반면에 미국에서는 그것이 10.8% 저하되였다.

그리하여 《쏘련의 공업 발전 템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며 우리들은 이를 따라 갈 수 없다》는 아우성 소리가 미국 출판물들에서 빈번히 울리고 있는 것은 신기한 일이 아니다.

특히 공산주의 건설의 결정적 촉진을 예견한 1959~1965년 쏘련 인민 경제 발전 7개년 계획 통제 수'자에 관한 흐루쏘프 동지의 보고 요강은 지금 전 세계를 격동시키고 있다.

이 기간에 쏘련 공업 총생산량은 약 1.8배, 농업 총생산량은 약 1.7배로 증가될 것이다.

이리하여 사회주의 공업 생산량이 자본주의 공업 생산량을 릉가할 날은 멀지 않았다. 이 장엄한 설계도 앞에서 지금 전 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은 일대 환성을 올리고 있으며 사회주의의 원쑤들은 떨고 있다.

장성 강화되는 사회주의 진영의 영향하에서 제국주의 식민지 국가들에서 민족 해방 운동이 광범히 전개되여 제국주의 식민지 체계는 급속도로 무너져 가고 있으며, 식민지 체계의 종국적인 청산 과정이 우리들의 목전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와 반면에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 진영은 오늘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그들 내부 모순은 더욱 격화되고 있다.

금년 상반년 간에 미국, 영국, 불란서, 서부 독일, 일본 등 중요 자본주의 국가들의 공업 생산은 작년 동기에 비하여 평균 4.6% 감소되였으며 자본주의 나라들에서의 실업자 수는 1929~1933년 간의 세계 경제 공황 당시보다도 훨씬 증가되고 있다.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로동과 자본과의 적대적 모순은 더욱더 첨예화되고 있으며 로동자들의 대규모적인 파업은 전체 자본주의 국가들을 휩쓸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자본주의가 오늘 림종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제국주의 지배층은 이러한 파국으로부터의 출로를 전쟁 도발에서 찾으려 하고 있으나 그들의 침략 음모는 도처에서 파탄되고 있다.

애급과 씨리아에 대한 미, 영, 불 제국주의자들의 무력 침공은 여지 없이 실패하고 말았으며 이라크 인민들에 대한 그들의 간섭도 실패하고 말았다.

미영 제국주의자들은 최근 레바논과 요르단으로부터 자기 군대를 철거시키지 않으면 안 되였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오늘 사회주의 세계는 급진적으로 번영하고 있는 반면에 자본주의의 낡은 세계는 이미 서산락일의 운명에 처하여 있다.

이것은 오늘 아무리 제국주의자들이 통란하여도 막을 수 없는 사회 발전의 객관적 합법칙성이다.

이러한 국제 정세의 근본적 전환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조선 인민의 투쟁에 결정적으로 유리한 정세를 조성하고 있으며 조선 인민의 평화적 통일 위업을 촉진시키는 현실적 가능성으로 된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조선 인민은 자기들의 단합된 력량으로 미제 침략 군대를 우리 강토로부터 물러가게 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고야 말 것이다.

그러나 우리 인민에게 이러한 유리한 조건과 가능성이 있다 하여 우리 나라에서 평화를 유지하며 평화적 조국 통일을 달성하는 사업이 투쟁 없이 저절로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의 투쟁은 세계 제국주의 침략 세력의 괴수인 미제와 대치하고 있는 것만큼 간고하고도 복잡하다. 미 제국주의 침략자들은 조선에서 순순히 물러 가려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남조선과 중국 대만 해협에서 재

로운 침략적 책동을 감행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당은 조선에서의 평화와 평화적 조국 통일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쟁취하여야 한다》는 김 일성 동지의 교시에 립각하여 평화적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을 일층 강화할 과업을 제기하고 있다. 평화적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주체적 력량을 일층 강화해야 하는바 그러기 위하여는 우선 그의 중심 고리로 되는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촉진시켜야 한다.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촉진시키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제 1차 5개년 계획은 물론, 공화국 창건 10주년 기념 경축 대회에서 진술한 보고에서 김 일성 동지가 제시한 사회주의 건설의 웅대한 과업을 훨씬 기한 단축하여 성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김 일성 동지는 이 보고에서 앞으로 6~7년 내에 전력은 200억 키로와트시, 석탄은 2,500만 톤, 선철과 립철은 합하여 400만 톤, 강철은 300~350만 톤, 화학 비료는 150~200만 톤, 세멘트는 500만 톤, 직물은 5억 메터, 사탕은 10만 톤, 어획고는 100만 톤, 그리고 알곡은 700만 톤 이상 생산할 데 대한 광활한 전망을 제시하였다.

이 과업의 수행은 우리 나라를 발전된 사회주의적 공업 국가로 전변시키게 될 것이며 그때에는 공산주의 사회를 리상으로서가 아니라 현실로서 가까운 지평선 우에 바라 볼 수 있는 높은 언덕에 올라 서게 될 것이다.

이 과업의 수행은 또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촉진시킬 것이며 장차 남조선의 동포들에게도 행복한 생활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강력한 물질적 토대를 축성하게 될 것이다.

때문에 우리들은 당 중앙 위원회의 편지 정신을 받들고 또한 자신을 공산주의 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여 우리의 전진 운동을 가로막는 일체 낡고 부패한 것을 쓸어 버리고 앙양된 혁명 기세를 계속 높일 것이다. 그리하여 김 일성 동지의 부름에 따라 4~5년 내에 더 빨리는 3~4년 내에 이 웅대한 과

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하겠다.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함에 있어서 오늘 혁명적 경각성을 제고하며 반혁명 분자들과의 투쟁을 강화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원쑤들은 오늘 천리마를 타고 달리는 우리의 앞길을 가로 막기 위하여 최후 발악을 다하고 있다. 때문에 우리들은 혁명적 경각성을 일층 제고하여 원쑤들의 파괴로부터 우리의 사회주의 전취물을 더욱 튼튼히 보위하며 반혁명 분자들을 한 놈도 남김 없이 적발 숙청하고 사회주의 건설의 촉진을 위하여 용감하게 전진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촉진하기 위하여서는 국내의 모든 애국적 력량을 우리 당의 주위에 더욱 집결시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투쟁에 그들을 일층 궐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 하면 조국의 평화적 통일 위업 달성은 반드시 전체 조선 인민의 일치한 노력과 투쟁이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국내의 애국적 력량을 더욱 굳게 단결시키기 위하여서는 특히 공화국 남반부에서 미제와 리 승만 도당들을 반대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지지하는 광범한 계층들과의 통일 전선을 결성하는 것이 극히 중요하다.

오늘 남조선에서는 한 줌도 못 되는 리 승만 괴뢰 집단을 제외하고는 로동자와 농민 뿐만 아니라 지식인, 청년 학생, 수공업자, 민족 자본가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층들의 리익은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 정책과 첨예한 모순을 이루고 있다. 이것은 남조선에서 애국적 력량의 통일 전선을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더 성숙되였다는 것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남조선의 파멸적인 현 상태를 개변하려고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합께 뭉쳐야 한다.

이와 함께 쏘련을 선두로 한 사회주의 진영과 전 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과의 친선과 단결을 강화하는 것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촉진함에 있어서 필수적 과업으로 제기된다.

우리 혁명의 경험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쏘련을 위수로 한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과의 불패의 친선 단결은 우리 인민의 승리의 담보의 하나로 되였으며 또 되고 있다.

더우기 오늘 국제 반동 세력이 《반쏘》, 《반공》의 각종 도발적 책동을 계속 조작하고 있으며 그에 발맞추어 수정주의자들이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를 훼방하며 사회주의 국가들과 공산당 및 로동당들을 파괴하려고 갖은 책동을 다하고 있는 조건하에서 그 어느때보다도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에 충실하며 쏘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과의 친선과 협조 관계를 각방으로 더욱 강화하는 것은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끝으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촉진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혁명의 참모부인 우리 당을 조직 사상적으로 일층 강화해야 한다. 그것은 우리 혁명의 승리는 바로 이를 지도하는 우리 당의 강화 여하에 결정적으로 달려 있기 때문이다.

우리 당을 강화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당 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일층 강화하는 것이다.

당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당원들의 당성을 더욱 강화해야 하며 동시에 수정주의 기타 온갖 적대적 부르조아 사상 요소들의 당내 침습을 견결히 반대하여 투쟁하며 당내에 잔존하는 지방주의, 가족주의, 종파주의 잔재를 근절하며 당을 사상 조직적으로 부단히 강화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전 당은 김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 중앙위원회 주위에 더욱 철석 같이 단결할 것이며 그를 정치 사상적으로 보위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이상의 모든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한다면 우리의 혁명 력량은 비상히 강화될 것이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은 달성되고야 말 것이다. 조국 통일이 빨리되는가 늦게 되는가 하는 문제는 바로 이 과업이 어떻게 수행되는가 여하에 달려 있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완전 독립을 위한 조선 인민의 투쟁은 정당한 투쟁이다.

오늘 조선 인민은 제국주의적 침략을 반대하며 민족적 독

렵을 달성하기 위한 투쟁에 있어서 자기들의 종국적 승리에 대하여 더 굳은 확신을 가지고 있다.

김 일성 동지가 말씀한 바와 같이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투쟁은 물론 간고하다. 《그러나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력량이 더욱 장성되고 남조선의 모든 애국적 민주 력량이 단결하여 미제와 리 승만 역도를 반대하는 구국 투쟁에 궐기 한다면 평화적 조국 통일은 반드시 실현되고야 말 것이다》(김 일성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창건 10주년 경축 대회에서 한 보고》 조선 로동당 출판사 판 42페지).

력사의 교훈은 정당한 투쟁에 궐기한 조선 인민의 전진을 가로막을 힘은 세상에 없으며 우리 앞에 극복하지 못할 난관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승리는 조국의 통일과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조선 인민의 편에 있다. 모두 다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 주위에 철석 같이 단결하여 조국의 평화적 통일 성취를 위하여 더욱 힘 있게 앞으로 전진하자.」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조선 로동당의 투쟁

편집 최 순만, 기편 김 종태, 교정 마 영길, 장정 어 태헌

발행소 조선 로동당 출판사　　인쇄소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평양시 북구역 문수동

인쇄 1958년 12월 19일　　발행 1958년 12월 25일

ㄱ—90687　　(값 24 원)　　발행 부수 33,500부